소년단

1963.9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9호

내 용

표지 1면 - 단심줄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

(제 6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어느 날 원수님은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동무들은 신바람이 나서 썰매바위에 올라 가서 승벽 다툼으로 미끄러져 내려 오군 했습니다. 원수님도 어느 사이에 그 축에 섞이였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원수님을 불러 놓고 잔잔한 목소리로

《너는 새 옷을 입구 바위에서 미끄러지면 어찌겠니, 그 옷을 봐라, 어디 쓰게 됐니.》

하고 타이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주었습니다.

《다른 애들두 노는데요 뭐.》

《가난한 집 애는 남보다 옷두 아껴야 하는 거야.》

《가난한 집 애는 그럼 썰매두 못 지쳐요?》

원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더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깊이 잠 들었다가 깨여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물레를 잣고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낮에도 어머니가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밤 늦도록 앉아 있으니 얼마나 곤할가 생각되였습니다. 원수님은 자리에서 부수수 일어나 앉으며

《어머니 같이 자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서 자거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네 옷두 더 만들어 줄 게 아니냐?》

하며 어머니는 계속 물레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눈 앞에는 낮에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밤 늦도록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래일 새벽에 일어 나서 조반을 지어야 할텐데 곤해서 어쩔가.)

이렇게 생각한 원수님은 어머니 곁으로 다구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바위 썰매 안 탈게 같이 자자요.》

원수님은 목메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레 잣던 손을 멈추고 사랑에 찬 눈으로 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겠다, 어서 자거라.》

《싫어요. 어머니가 누워야 나두 잘테야요.》

원수님은 어머니의 손을 끌어 당겼습니다.

《그럼 자자.》

어머니는 원수님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원수님은 바위 썰매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넌 뭘 그리 생각하구 있니.》

응화가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원수님은 빙긋 웃으며 발'걸음을 옮기였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과 함께 산'비탈을 올라가다가 큰 나무 그루 앞에 이르렀습니다. 나무 그루를 보니 7년 전에 이 곳에 큰 참나무가 서 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였습니다.

《여기 있던 참나무는 왜 베 버렸을가.》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동산 교회 목사 놈이 베 갔단다.》

《왜》

《여름에 례배당에서 사경회인지 뭔지를 하던 모양이더라, 그런데 우리 안 동네는 물론이구 골안이나 양지 마을의 처녀 색시들이 모두 여기 맸던 그네터루 모여 들지 않았겠니? 그래서 례배당은 텅 비였나부더라. 글쎄 어디서 목사인지 조사인지 불러다 놓구 매끼식마다 닭을 두세 마리씩 잡아 먹이면서 사경인지 오경인지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창피하기두 하구 후끈 달지 않겠니 그러니까 달려 와서 나무를 찍어 간 거지 뭐.》

이 말을 들은 원수님은 참나무가 없어진 것이 무척 아쉬운 한편 동산 교회의 목사라는 그자의 소행이 얄미웠습니다.

5월 단오나 8월 추석이 되면 이 마을 처녀들과 색시들은 이 참나무에 그네를 매고 치마'자락을 휼날리며 나비처럼 춤을 추며 즐기던 곳입니다.

그러나 원수님의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그것만은 아니였습니다.

김 형직 선생께서 놈들에게 체포되여 악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원수님의 손목을 잡고 가끔 이 그네터로 나오군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저녁이였습니다. 이 날도 어머니는 원수님을 데리고 그네터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원수님을 무릎에 앉히우고 그네에 앉았습니다. 이 날 따라 그네터에는 아무도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네는 천천히 흔들거렸습니다. 농촌 마을의 저녁은 무척 고요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우는 모기 쑥 냄새가 산'비탈에까지 풍겨 왔습니다.

《중손아! 너 아버지 보구 싶지 않니?》

어머니는 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 드는 달'빛에 더욱 환해 보이는 원수님의 얼굴을 드려다 보며 물었습니다.

《보구 싶어! 아버지는 백 밤 자면 온다더니 이제두 백밤 못 됐나?》

《이제는 백밤두 지난지 오랬단다.》

《그런데 왜 안 오시나.》

《일본 놈들이 아버지를 캄캄한 방에 가두어 놓구 못 오게 한단다.》

《왜 우리 아버지를 가두었나.》

《아버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모두 가두어 놓아야 도적질을 마음 놓구 할 수 있지 않겠니.》

《일본 놈들은 다 도적 놈이나.》

《도적놈이지! 악독한 도적놈이란다.》

《아버지가 그놈들이 도적질을 못해 가게 했나?》

《그럼!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 우리 나라에는 아주 많단다.》

《엄마! 나두 이 만큼 크면 그놈들이 도적질을 못해가게 할테야, 난 군대 놀이에서 대장이거든! 일본놈들두 대장 무서워하지!》

《무서워 하구 말구!》

《우리 동네 아이들 다 데리구 가서 그놈들 족칠테야.》

《그래야지, 꼭 그래야 한다.》 하며 어머니는 원수님을 따뜻한 품에 꼭 안아 주었습니다.

원수님은 이곳 만경대의 력사를 잘 알고 있다는듯이 산'비탈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놀음터로 되고 있던 참나무를 잃은 것이 마치 친한 동무라도 잃은듯이 서운했습니다.

《참나무를 찍은 후에는 례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구나.》

하고 원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많이 모일 게 뭐냐. 전에 가던 사람들까지 장마통에 호박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져 나갔단다.》

《왜》

《그런 돼지 같은 욕심쟁이가 목사인지 뭔지 하니까 누가 가겠니.》

《욕심까지 사나왔나?》

《욕심이 땅보다두 더 두터웠단다. 글쎄 참나무를 찍어다가 모두 자기네가 가져 갔으니까 누가 좋아하겠니.》

《장작이 떨어졌던 모양이구나.》

하고 원수님이 말하자 모두 깔깔 웃어 댔습니다.

《남들은 모두 뜨거운 해'빛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바빠하는데 그놈의 목사인지 뭔지 하는 작자는 모시 행의를 척 입구 매꼬모자를 쓰구 양산을 척 받구말이야. 젊은 녀자들을 물구 이집 저집 찾아 다니는 꼴은 정말 보기 싫더라.》

《흥! 그러면서두 복을 빌어 주러 다닌다나?》

《복은 무슨 복이야, 초복이야, 말복이야, 오던 복두 달아나겠다 얘.》

《목사인지 뭔지 왔다 가면 그 집의 병아리는 몇 놈씩 꼭꼭 축나게 마련이니 그게 복이냐?》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만경봉으로 올라 갔습니다. 만경봉에는 하늘을 찌를듯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하늘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6

원수님은 오래간만에 그립던 만경봉에 올라 가서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올망졸망한 산'봉우리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눈 앞에 안겨 왔습니다.

평양성을 에돌아 구비쳐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깃을 물에 적시면 파란 물이라도 들듯한 고운 물'결이였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 나무'잎처럼 떠 있는 뗌마들이 보입니다. 숭어를 낚는 고기'배인듯 싶었습니다.

(압록강과 대동강은 어느 편이 더 아름다울가?)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압록강은 압록강으로 좋은 데가 있고 대동강은 대동강으로 아름다운 데가 있다고 생각되였습니다.

원수님은 서북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뚝 솟은 대보산은 만경대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앞으로 달음질치는 장군봉처럼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려서 자주 만경봉을 오르내렸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수수'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랴 낄낄》 하면서 맨 앞장에 서서 이리로 올라 오군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산'봉우리에 자기가 먼저 올라 왔다고 고함도 치고 씨름도 하고 뛰놀았습니다. 여름이면 순화강에서 자맥질도 하고 물싸움도 하면서 재미 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만경대가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생각치 못 하였습니다.

중강진과 림강 그리고 8도구로 이사 다니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군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수님은 그저 그런가부다 생각하면서 한 번 다시 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 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경봉에 다시 올라 보니 정말 아름다왔습니다.

대동강을 건너 두루섬과 고노섬은 형제인양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는데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섬을 덮었습니다. 섬이라기보다도 아름다운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대보산 우에 솜 같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만하여도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서 피여 올랐는지 산'봉우리보다도 더 큰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 올랐습니다.

(저 구름을 잡아 타고 우리 나라를 한 번 뼁 돌아 보았으면 좋겠구나!)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솜 같이 피여 오르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답게 조화되여 만경대의 경치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때에 구름 밑으로 독수리 한 마리가 둥그러미를 그리며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독수리처럼 사람도 날아 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싶었습니다. 이 때에 룡훈이가 원수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넌 뭘 그리 바라보구 있니》

원수님은 룡훈이를 쓱 둘러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냐, 정말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야.》

원수님은 다시 대동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룡훈이는 경치에는 별로 감동이 가지 않는 모양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돌미륵처럼 서고 슬금슬금 원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앞 가슴이 쩍 버그러진 튼튼한 체구, 유달리 환하면서 언제나 만면에 웃음을 띠우고 있는 얼굴, 사뭇 번쩍이여 새 정기가 솟구치고 있는 눈매, 약간 거쉬인듯 하면서도 굵은 음성, 웃을 때마다 약간 보이는 가지런한 흰 이와 두 볼에 옴폭 패이는 보조개…

이러한 모습에 룡훈이는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에 잘 어울리여 원수님의 얼굴은 더욱 황홀하게 보였습니다.

룡훈이는 무척 부러운 눈으로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님의 얼굴 모습이 황홀하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룡훈이는 원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훌륭한 어른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만 들은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도 부러운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원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룡훈이로 하여금 원수님을 더욱 부러워하게 한 것입니다. 원수님이 단신으로 중국서 만경대까지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탄하였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구! 범연하겠나.》

《두구 보게 우리 만경대서 큰 사람 난대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구! 여기서 떠날 때부터 도량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지 않았나.》

룡훈이는 오늘 아침 방아'간 모퉁이에서 어른들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룡훈이는 그것이 원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증손이는 우리들과는 비교두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아이야!)

룡훈이는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은 아까부터 룡훈이가 옆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 보고 있는 것을 감촉하였습니다.

《내 얼굴에 검당이 묻었니?》

원수님은 손바닥으로 볼을 쓱 문지르며 룡훈이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룡훈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원수님은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던 리유를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 원수님의 머리에는 언젠가 아버지께서 만경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를 왜 만경대라구 부르는지 아니?》

《몰라!》

《옛날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말이야》

원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무들의 시선은 원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당시의 임금이던 선조께서 평양에 들리셨다가 여기를 보셨다는 거야, 경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일만 가지의 경치를 여기서 볼 수 있다구 하시면서 아주 칭찬이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만경대라구 부른다지 않니.》

동무들은 줄곧 보는 경치여서 별로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 하였지만은 지금 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바라 보니 모두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말 없이 한 동안 사방을 둘러 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강산을 빼앗기고 산 설고 물 설은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 많은 동포들이 한 없이 가엾게 생각되였습니다. 원수님의 눈 앞에는 며칠 전에 쉴 터에서 만났던 경상도에서 떠났다는 한 가족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등'짐 우에 올라 앉아 북으로 향하던 어린애의 모습이 더욱 인상 깊게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쯤 갔을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수님은 가늘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그 어린애는 한 아이가 아니라 전체 조선 아이를 대표한 아이처럼 생각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공화국 기'발을 바라 볼때 마다

백 하 립

모란봉을 찾을 때마다 나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본다.

그네를 뛰는 아이들, 미끄럼'대에서 노는 아이들…어떤 아이들은 공원에 마련되여 있는 비행기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 아이들이 좋아 어쩔 줄 모르며 팔을 휘저을 때마다 비행기에 새겨진 공화국 기'발이 해'빛에 번뜩인다.

공화국 기'발!

저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공화국은 얼마나 힘 있게 달려 왔는가!

공화국이 창건되는 날 너무도 기뻐 덩실덩실 춤 추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어언간 15 년이 된다. 그 동안 조국은 실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왔다. 모든 것이 몰라보게 변하였다. 우리 손으로 못 만드는 기계가 없게 된 공화국!

곳곳에 세워진 공장과 광산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라지오, 재봉기를 만들어 내며 신발과 옷감이 무진장하게 쏟아져 나온다. 산과 들엔 오곡백과 무르익어 집집마다에서는 해마다 옥백미를 거둬 들인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나라 우리의 공화국,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조국과 함께 저 애들의 앞날은 또 얼마나 좋을 것인가!

공화국 기'발을 바라 보며 이렇게 생각하느라니 조국 해방 전쟁 때 일이 문뜩 떠오른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나는 삼천만 조선 사람들의 행복과 미래가 아로새겨져 있는 공화국 기'발을 휘날리며 부대

를 지휘하여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둥지를 틀고 있던 서울이 해방되고 소위 《중앙청》 꼭대기에 공화국 기'발이 휘날리였다.

우리를 환영하여 목이 메게 만세를 부르며 사람들이 모여 왔다. 그들 속에는 겨우 몸을 가리우고 맨발을 벗고 달려 나온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먹지 못 하여 퉁퉁 부어 있었다.

학교에 갈 나이가 훨씬 지났으나 배우지 못 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이였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김 일성 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배워 주었다. 아이들은 노래 부르며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하여, 공화국 북반부 소년단원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해 달라고 졸라대였다. 나는 거리거리에 휘날리는 공화국 기'발을 바라보며 (저 기'발 아래 이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라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며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피로써 찾아 준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남홍색 공화국 기'발을 이윽도록 바라 보던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다.

인민 군대에 입대하여, 아버지를 학살하고 어머니를 죽인 미군놈들을 반대하여 싸우겠다며 멀리까지 따라 오는 것을 겨우 돌려 보낸 그 애들! 그 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던가. 동북 땅에서 태여나 여기서 16 세의 어린 몸에 항일 빨찌산에 입대하던 때의 이야기며 김 일성 원수님께서 산 좋고 물 맑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 속히 일제 원쑤놈들을 쳐부실 생각으로 밤을 밝히던 이야기,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조국땅 보천보에 진군하여 승리의 홰'불을 올리던 때의 이야기…

그렇지만 나는 이들과 함께 오래 있을 겨를이 없었다. 아직 해방되지 못 한 곳 인민들이 우리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놈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을 한시바삐 해방시켜야 했던 것이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 미군놈들을 많이 쓰러눕히고 빨리 돌아 오세요.》

원쑤의 포성을 지척에 들으며 전선으로 달려 나갈 때 아이들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였다. 아이들의 이 간절한 당부를 받은 우리는 전투마다에서 백배, 천배의 용기를 내여 원쑤를 쳐부셨다.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은 총탄에 뚫리고 포탄에 찢어진 공화국 기'발을 튼튼히 틀어 쥐고 비오듯 퍼붓는 탄우 속을 뚫고 원쑤를 무찔렀다.

한 전사가 쓰러지면 다른 전사가 넘겨 받고 그 전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전사가 넘겨 받아 들고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조국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공화국 기'발을 휘날리지 않았던가!

후방에서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불행하게 놈들에게 체포된 우리의 로동당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옷'자락과 치마'자락을 찢어 붉은 피로 공화국기를 새겨 적들의 면전에 휘날리였고 가슴에 품은 공화국 기'발을 끝까지 간직하고 쓰러지면서도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부른 소년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격동시켰던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높은 혁명 정신을 이어 받아 하나로 뭉쳐 나아가는 조선 인민을 어떤 원쑤놈들이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인가.

미제 원쑤놈들은 마침내 무릎을 꿇였다. 그렇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공화국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 조선 인민을 굴복할 힘은 세상에 없다.

소년단원 동무들!

공화국 기'발을 볼 때마다 동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조국이 걸어 온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을!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얼마나 억센가!

우리는 그 어떤 남의 힘을 믿고 사는 인민이 아니다. 우리는 로동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와 자연 부원으로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면서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로 공장도 광산도 우리의 손으로 척척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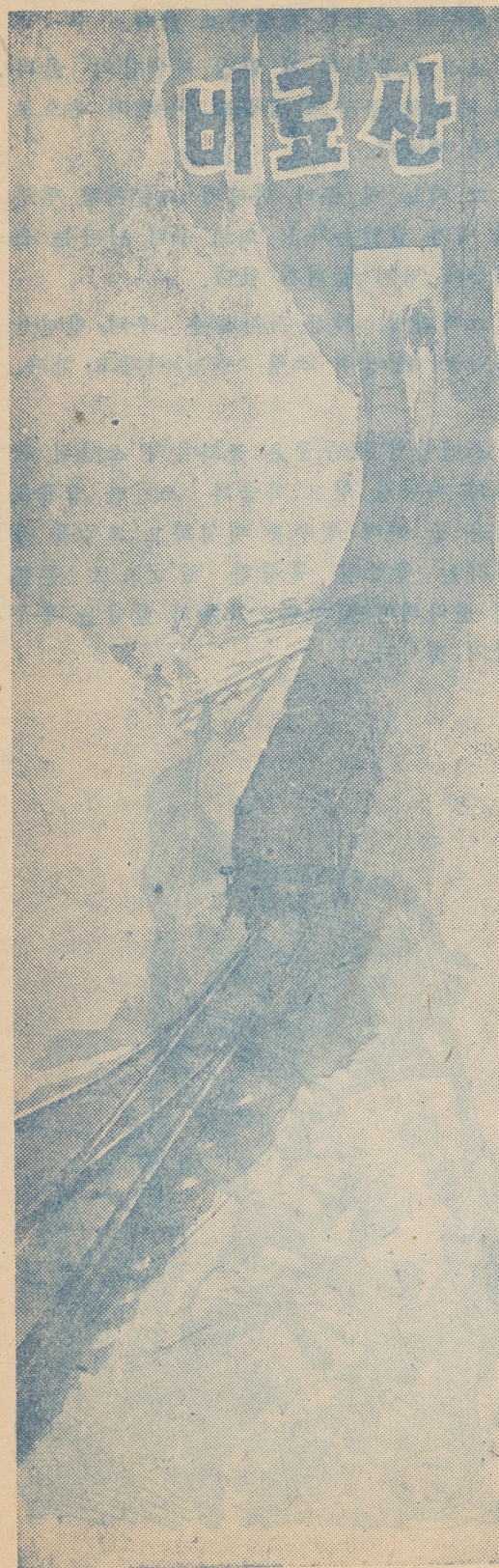
그 어느 때 우리 나라가 오늘처럼 번영한 때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민을 가리켜 《영웅적 조선 인민》이라고 한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공화국의 소년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 하여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조국의 앞날은 동무들의 것이다.

《나서 자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장부의 일편 단심 거칠 것이 없거늘,

적들도 만만치는 않거니와 우리의 힘은 그 얼마나 강한가! 내 인민들의 념원을 너무도 잘 알기에 비록 이 몸이 가루가 되여 흔적조차 없어질망정 기어코 내 나라를 지켜 내고야 말리라》

※배 중손은 싸움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노래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13 세기 중엽 원 (몽고) 침략자와의 싸움에 언제나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군사를 잘 지휘한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비료산 앞에서

민 병 학

하늘 높이 유유히 흘러 가던 구름 한 떼가 공중 높이 웃뚝 솟은 저 비료 공장 지붕에 걸려 들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료산!

우리는 웅대하고 슬기로움을 그 대로 자랑하는 이 비료산을 찾아 갔지요.

사방에 둘러 싼 비료산들은 은백색 광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서느럽고 상쾌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비료산 싣고 농장'벌로 떠나는 기차의 기적 소리는 산과 들로 메아리칩니다. 《떠납니다. 협동'벌마다 대풍이 들어 500만 톤 고지 우에 또다시 승리의 기'발을 꽂으라고 공장 아저씨들의 붉은 마음을 싣고 떠납니다.》

비료 공장! 우리의 비료 공장은 참으로 웅대하고 아름다운 공장입니다. 아니 동화에 나오는 크나큰 궁전 같기도 합니다.

사철 흰 눈'가루가 흩날리는 공장!

여기서 일하는 로동자 아저씨들은 얼마나 좋을가요. 허물어 내고 또 허물어 내도 낮아질 줄 모르는 이 비료산을 만드는 아저씨들이 정말 부러워요.

그렇지만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너무 부러워만 말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비료 공장에 다니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는 공장》하고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비료 공장에 기계들을 보내 주신 선반공 아버지를 모신 동무들도, 쌀을 보내 주시는 농장원 어머니를 모신 동무들도 함께 부릅시다. 《우리의 공장》이라고, 아니 우리가 크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을텐데 《나의 공장》이라고 자랑하자요. 《우리의 공장》, 《나의 공장》도 좋지만 모두가 우리 조국이라는 위대한 이름 속에 들어 있는 말들이니 자랑하자요. 공장 많은 우리 조국을 소리 높이 자랑하자요.

그럼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비료 공장을 돌아 보는 것이 어때요? 좋다구요?

글쎄 왜놈 시대에는 이 공장이 정말 볼 꼴 없었답니다. 기계들은 모두 낡아 빠지고 힘든 일을 죄다 사람들의 등'짐으로 해냈대요. 그리고 왜놈들한테 피땀을 얼마나 빨렸게요!

지금 저 꼼뻬아를 타고 올라 가는 비료 가마니를 그 때에는 로동자 아저씨들이 등'짐으로 날랐대요. 나르다가 그만 허기에 지쳐서 쓰러지면 비료 가마니에 깔려 다시는 일어 나지 못 했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탈에 걸리면 공장에서 쫓겨 났대요. 공장에서는 기계에 치워 무참히 죽은 사람들이 매일 두세 명씩 실려 나갔대요. 그러기에 그 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쫓겨 난 공장》, 《아버지가 돌아 가신 공장》 하고 원한의 종주먹을 부르쥐고 저주의 끓는 눈물을 흠치군 했대요. 비료는 몽땅 일본놈들이 제나라로 실어 가구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가구요? 보세요. 저 협동'벌로 떠나는 비료'더미를! 저게 다 우리의 농촌으로 가 쌀'더미가 되지요. 올해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영농기 전으로 68만 3천 톤의 비료와 1만 톤의 농약이 공급 되였답니다. 물론 비료 공장이 어디에 있건 그것이 이제는 모두가 우리의 것이예요. 지금 이 공장은 모두 기계들이 힘든 일을 맡아 하고 있어요. 로동자 아저씨들은 스위치만 꾹 누르면 돼요. 참말로 좋은 곳이예요. 보세요. 저 기계들을! 하늘에서 공기를 잡아 질소를 뽑아 내고 비료를 뽑아 낼 때까지 모두 기계들이 저절로 해 내지요. 그러니 누구든 부러워 하는 곳예요. 그럼 이처럼 웅대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누가 지었나요. 물론 우리의 로동자 아저씨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못 해 낼 일이 없대요. 하긴 이보다 더 복잡하고 힘든 2. 8 비날론 공장도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의 힘과 기술로 세계에 자랑할만하게 열싸하게 지어 놓질 않았어요.

로동자 아저씨들은 말씀하셔요. 《얘들아! 할 이야기는 너무도 많구나.》 하고 말이지요.

경애하는 수령님이 열 일곱 차례나 찾아 오신 이야기며 로동자 아저씨와 자리를 마주하시고 원쑤놈들이 파괴하여 놓은 공장을 더욱 새롭고 훌륭한 공장으로 복구 건설하라고 가르쳐 주시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변류 직장 20 호 변류기는 원수님이 다섯 차례나 돌보신 기계라 해요. 그 뿐인가요. 35 호 변류기는 로동당원이였던 리 종갑 아저씨가 미국놈의 폭격 속에서 목숨을 바쳐 구원한 기계구요. 합성 직장 3호 압축기 역시 로동당원 정 생은 아저씨가 목숨으로 구원한 기계인데 오늘은 그의 딸 정 순자 누나가 맡아 돌리고 있대요. 압축기와 변류기는 비료를 만드는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기계예요. 부속품만 해도 수천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모두 우리 나라 기계 공장들에서 만들어져 보내 온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겠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조리 듣기로 약속했지만 오늘은 우선 직장장으로 일하시는 리 운호 아저씨가 들려 주시는 2 호 가스 땅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답니다.

2 호 가스 땅크를 세울 때 일이예요. 가스 땅크는 비료의 원료인 질소와 수소, 산소들을 넣어 두는 공기들의 집이랍니다. 정전 후 단숨에 1 호 땅크를 복구하고 로동자 아저씨들은 계속해서 2 호 땅크의 복구에 달라 붙었대요. 다른 땅크들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형태조차 없었지만 2 호 땅크는 좀 성한 편이였대요. 그래 우선 복구하자고 로동자 아저씨들이 달려 갔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글쎄 땅크 안에는 미국놈들이 뿌린 시한탄이 철판을 꿰뚫고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로동당원 아저씨들은 곧 한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비상한 환경에 부닥치면 눈에 불꽃부터 튀는 아저씨들이 였으니까요. 뒤로 민청원 형님들도 찾아 왔어요. 아저씨들은 너도 나도 한 사람처럼 일어 섰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엄숙히 일어 선 아저씨들은 《저 폭탄을 내가 파내겠소.》 하고 불을 토했어요.

《동지들! 만약 저 폭탄을 파내지 않고

그냥 폭발시키는 날에는 2 호 땅크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1 호 땅크가 날아 가게 됩니다. 우리는 1 호 땅크를 어떻게 복구하였습니까! 수령님의 부름을 받들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심장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어찌 손에 무기를 잡고 원쑤를 맞받아 육박전으로 내닫던 그 때만을 전투라 하겠소. 이것도 전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크를 저 미국놈의 폭탄 앞에 내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저씨들은 결사대를 무어 아슬아슬한 전투에 나섰대요. 전투장은 땅을 파내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였어요.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밖에서 기다리는 아저씨들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한 시간을 이여 일곱 시간이 되여서야 드디여 폭탄이 빠져 나왔어요.

《만세 !》, 《만세 !》 감격의 함성이 터져 올랐어요. 아저씨들은 너무나 기뻐 막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수령님의 전사답게 씩씩하게 싸웠다는 자랑의 눈물이였지요. 리 운호 아저씨는 세포 위원장이였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저씨의 앞가슴에 빛나는 국기 훈장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 알았어요. 아저씨는 말씀하셔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 없이 많다고요. 거미줄 같이 엉킨 땅 속의 배관과 전선들을 이어 맞추느라 얼음 섞인 물 속을 헤치며 찾아 다니던 아저씨들도, 손과 발이 얼어드는 모진 추위와 싸우면서 류산탑을 기한 전에 쌓아 올린 아저씨들도 모두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대요. 이것은 모두가 비료산을 쌓는 일이니 어김 없이 하여야만 했지요.

그 다음 로력 영웅 리 영춘, 박 봉조 아저씨와 2 중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의 이야기는 또 어떻구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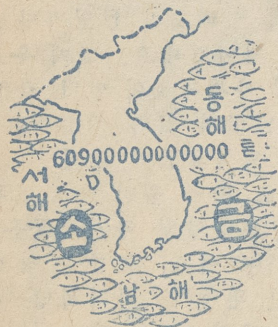
비료산! 우리는 다시 비료산으로 옮겨 왔어요. 비료산은 보통 산이 아니예요. 그것은 쌀이 나오고 옷감이 나오는 보배산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 비료 공장을 곳곳에 더 많이 늘쿤답니다. 지금 저기에 마감 단계에 들어 선 공사가 35 만 톤의 질안 석회 비료를 더 얻는 질안 석회 비료 직장이랍니다.

태양 아래 빛을 뿌리는 비료산! 이는 수령님의 부름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로동자 아저씨들의 뜨거운 마음이예요. 실어 내도 실어 내도 낮아지지 않는 비료산은 로동자 아저씨들의 로력의 열매예요.

우리 소년단원들도 배우며 일하며 쌓아야 할 비료산, 비료산을 넘겨다 보며 탐욕의 춤을 삼키는 원쑤로부터 우리도 지켜야 할 조국의 한 부분이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대륙만한 소금

바다'물 한 ℓ 중에는 약 35 그람의 소금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별로 큰 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륙지의 거의 2.5 배가 넓으며 그의 용적이 13억 7.000 km^3나 된다는 것을 안다면 세계의 바다'물에 녹아 있는 소금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의 량은 4,796 톤에 0을 13 개나 친 것과 같은 수'자로 됩니다.

이를 한 곳에 모아 쌓아 올린다면 실로 아프리카 대륙만한 소금 《대륙》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 상에 펴 놓는다면 30 m 이상의 두께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동해, 서해, 남해의 소금은 얼마나 될가요?

동해, 서해, 남해의 소금을 전부 모으면 609 톤에 0을 11 개 친 것과 같은 수'자로 됩니다.

그는 억세게 자라고 있다

—황남 해주시 혁명 학원 리 근모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최 죽 산

그가 한 살 때

근모가 아직 세상에 태여나기 전인 1940년 봄, 근모의 아버지와 형 (익모)은 지주 왕 과부의 머슴이 되였다. 그것은 그 전에 가져다 먹은 장리'쌀과 소작료를 갚지 못 한 탓이였다.

《이 사람아, 사람이 먹고야 살지 않겠나, 어서 군말 말고 익모와 임자가 3 년만 우리 집에 와 있게, 그러면 여태까지 먹은 장리나 소작료를 면해 줄 수 있네.》

암만 빚값이나 소작료를 내라고 다구쳐야 받아 낼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안 지주년은 그럴 바엔 아예 근모네 장정들을 머슴으로 끌어다 부려 먹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우 같이 간교한 지주년의 수작에 아버지는 대뜸 주먹이 떨렸지만 그러나 가난이 원쑤라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머슴이 된 얼마 후 산에 나무 하러 갔던 근모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였다. 산에서 풀을 뜯던 송아지가 그만 바위 짬에 발이 끼여 발쪽 하나가 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절룩거리는 송아지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 왔다. 어느새 봤는지 지주년이 마루에서 게거품을 물고 내려 오며 소리질렀다.

《이 놈아, 송아지가 왜 절어, 앙?》

《송아지가 풀을 뜯다가 그만 바위 짬에 발이 끼였댔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자

《무엇이 어째? 네까짓 건 몸을 팔아도 못 살 송아지를 병신을 만들었단 말야, 앙!》

왕 지주는 다짜고짜 아버지의 뺨을 후려 갈겼다. 아버지는 그저 억울한 매만 맞을 수 없었다. 그는 날아 드는 지주년의 손을 잡아 옆으로 홱 뿌리쳤다. 그 바람에 지주년은 앞으로 코'방아를 찧으며 쓰러졌다.

《이 놈, 이 이 이 놈, 사람을 쳐?》

악에 바친 지주년은 부들부들 떨며 벌컥 일어 나더니만 어느새 곁에 있는 호미를 집어 아버지의 가슴팍을 되게 후려 갈겼다.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호미에 얻어 맞은 아버지는 그만 《앗》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른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지주년에게 가슴을 맞은 것이 탈이 되여 그만 자리에 누운 지 나흘만에 약 한 첩 써 보지 못 한 채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근모는 한 살에 아버지를 원쑤에게 잃었다.

그가 여섯 살 때

8.15 해방을 맞이했다.

근모네 집에서도 토지 개혁으로 4,000여 평의 논밭을 분여 받았다.

어머니는 리 녀맹 위원장으로 일

했고 형님은 군 자위대장으로 일했다.

근모가 여섯 살 되는 해에는 오막살이 초가집을 헐고 그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명실하니 지었다.

어머니는 모범 농민으로 신문에까지 났다.

이 해부터 근모는 유치원에 다니였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근모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들으며 기뻐도 했다. 그 해가 바로 우리의 공화국이 창건된 해였다. 그 해 가을 공화국 창건을 경축하는 명절날 근모는 어머니 손에 이끌리여 손에 공화국 기'발을 들고 거리로 나갔었다. 그 때 아직 여섯 살인 그는 그저 영문도 모르고 춤과 노래로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좋아라고 수기만을 흔들었다.

《야! 때때옷 입은 근모가 제일 곱구나.》

마을 처녀들이 달려 와서 그를 덥석 들어 안았다. 어른들은 노래도 시켰다.

《…아아 자유 조선, 인민 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어머니는 근모가 이처럼 재냥스럽게 노래 부르며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를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리라 다짐했고 이러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그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가 여덟 살 때

근모는 이렇게 자라 여덟 살 되는 해 마을의 인민 학교에 입학하였다.

어머니 손목에 이끌리여 학교로 가는 날 근모는 어머니에게 불쑥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진 왜 없나?》

근모는 아버지와 함께 가는 아이들을 보니 불시에 아버지의 생각이 났던 것이다. 뜻하지 않은 근모의 물음에 어머니는

《이제 학교에 가 공불 잘 하면 어머니가 다 이야기해 주지.》

하고 말끝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언제 제땅을 가지고 맘 대로 농사 지을 세상이 오겠는가 하며 입버릇처럼 외우며 일하던 근모 아버지가 오늘과 같은 세상을 보지 못 하고 지주놈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걸 생각하니 어머니는 목이 콱 메여 왔다. 그러나 이 기쁜 날에 근모에게 슬픈 얼굴을 보일 수는 없어 그저 먼 하늘만 바라 보았다.

그 날 저녁 어머니는 어린 근모에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 우리는 나라에서 준 땅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농사를 짓니, 인민의 나라는 이렇게 좋단다. 아버진 항상 이런 세상을 바라시였단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보지 못 하고 그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근모에게는 지주놈이 한없이 미웠다. 그는 기어이 커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리라 속다짐 했다.

근모는 짬짬이 어머니의 일'손도 도우며 최우등으로 공부했다.

그러나 미제 승냥이놈들과 리 승만 역도는 그의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덤벼 들었다. 1950년 10월 17일,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 든 미국놈들은 근모의 고향인 신천 땅에도 몰려 왔다.

피에 주린 원쑤놈들은 로동당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다 가두었고 근모의 어머니와 형님도 끌어다 가두었다. 그리고는 갖은 고문을 다한 끝에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 후 근모의 할머니, 누나들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놈들에게 끌려 가서 무참히 학살되였다. (그 때 근모와 그의 누나 영옥이는 고모네 집에 피신하여 있었다.)

이리하여 근모는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고아로 되였다.

그가 열 여섯 살 때

원쑤들은 어린 근모에게서 행복의 노래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근모는 비록 고아가 되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당과 공화국 정부는 그를 친부모의 따뜻한 품으로 포근히 안아 주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과 조금도 다름 없이 학교에 다니였다.

그가 아홉살 되여 소년단에 입단하였다.

근모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부모의 원쑤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에서는 늘 최우등을 했고 조직에서 주는 위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수행하고야 잠을 잤다.

동무들은 모든 일에서 열성 있고 모범인 그를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했다. 근모는 분단을 규률 있고 화목한 집단으로 꾸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그는 중앙 모범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 후 또다시 동무들은 근모를 단 위원장으로 선거했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인 근모는 열 여섯 살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이 되였다.

그는 가슴에 매였던 붉은 넥타이를 풀고 푸른 맹증을 가슴에 지닌 날,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온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자기가 걸어 온 지난날을 생각하는 그의 두 눈에서는 어느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글썽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근모는 수첩을 꺼내 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적어 갔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원쑤들에게 부모를 잃은 어린 나를 이렇듯 어엿한 민청원으로까지 키워 주셨다.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지금 내 가슴에는 푸른 맹증이 간직되여 있다. 나는 이 맹증을 간직하고 조선 로동당원이 되련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며 부모의 원쑤를 기어이 갚으리라!》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근모는 당과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린 소년으로부터 이렇듯 어엿한 민청원으로 자라났다.

·지금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인 그는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 더욱 힘써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

☆ 그림으로 본 북반부와 남반부 어린이들 ☆

문 성옥 그림

피에 젖은 맹증

김 덕 현

재 솜 같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 오르는 8월 어느 날,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을 찾았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러 보고 나서 해설원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발'길을 옮기던 우리는 한 진렬대 앞에서 그만 멎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구요?

적탄에 찢기우고 피에 젖은 한 민청 맹증이 우리를 붙어 잡았어요.

맹증에는 김 정국이란 세 글'자가 뚜렷이 새겨 있어요. 그것을 바라 보는 우리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서슴 없이 바쳐 미국놈을 때려 눕힌 용감한 민청원 형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해설원 누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 ×

1950년 6월 27일, 서울에로의 진격을 앞두고 있은 일이였습니다. 포천, 동두천 일대에서 인민군 형님들한테 혼쌀이 난 원쑤놈들은 서울로 꼬리 빠지게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방군》놈들은 미아리(서울로 들어 가는 데 있는 고개)고개 일대에서 인민군 형님들의 진격을 막아 보려고 도로에다가 지뢰 (땅에 파묻는 폭탄)를 무수히 파묻고 야단을 쳤습니다. 진격하던 인민 군대 땅크들은 잠시 머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어요.

그 놈의 지뢰 때문에 땅크가 들어 가지 못 하니까요. 이런 때 그 지뢰를 파 제끼라는 어려운 임무가 공병 형님들에게 내렸습니다.

민청원인 공병 분대장 김 정국 형님은 두 명의 대원을 데리고 이 어려운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형님들은 물이 즐벅한 오솔'길을 따라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쑤놈들의 중기, 경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 왔고 이따금 소경 막대질하듯 쏘아대는 놈들의 총탄이 머리 우를 윙윙 지나 갔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건너 편 고지에는 놈들의 화점 (중기, 경기를 걸어 놓고 쏘는 곳)들이 마치 사마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 고지 밑을 감싸듯이 도로가 지나 갔고 그 옆으로 맑은 개울이 흘러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덧 서산 넘어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굽이진 개울물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왔습니다.

(이 개울을 따라 남쪽으로는 원쑤놈들에게 짓눌린 많은 부모, 형제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뢰 때문에 우리 땅크가 전진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형님들의 가슴은 찢어질듯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놈들의 지뢰를 몽땅 파 제끼고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 저 원쑤 놈들을 모조리 족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해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국 형님의 눈앞에는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정국 형님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지주 황 치부라는 놈의 소작을 하고 살았답니다. 황 치부는 악착스러운데 들어 서는 승냥이를 찜쪄먹을 놈이였어요.

어느 해 가을,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 와 동구 앞에 있는 밭을 논으로 풀어 한 해 동안을 거저 부치라고 하는 것이였지요.

지주놈의 배'심을 미처 모른 아버지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래서 언 땅이 채 녹기도 전부터 밤낮으로 밭을 뚜져 논으로 풀었습니다. 여름내 정성들여 가꾼 탓으로 논에서는 벼 네 가마니가 났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방구석에 쌓아 둔 벼'가마니를 바라 보면서 뼈힘들여 고생하느라면 이런 횡재도 있는가부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 치부란 놈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로 소 외양'간 재목 값을 내라는 것이였어요. 황 치부란 놈은 아버지가 푼 논에서 벼'모가 키돋음을 하여 자라는 것을 보자 군침을 다시며 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을이 되여 정국 형님네 집으로 벼'가마니가 들어 가는 걸 보자 며칠을 두고 머리를 짜던 끝에 마침내 정국 형님네한테 언젠가 황소 한 마리를 반작으로 줄 때 함께 준 외양'간 기둥'감을 생각해 냈던 거랍니다.

아버지는 황소를 돌려 줄 때면 외양'간도 그 집 것이 될텐데 무슨 재목 값이냐고 버티였으나 허사였습니다. 등쳐먹고 간 빼 먹는 승냥이 세상에서 별 도리가 없었지요. 어굴하게도 종내 벼 네 가마니를 몽땅 빼앗기고 말았지요.

8.15 해방이 되였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농민들에게 한 평생 소원이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행복 속에서 정국 형님은 학교에 가게 되였고 민청원이 되여 맹증까지 받아 가슴에 품게 되였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던 정국 형님은 슬그머니 앞가슴에 손을 가져 가 맹증 주머니를 만져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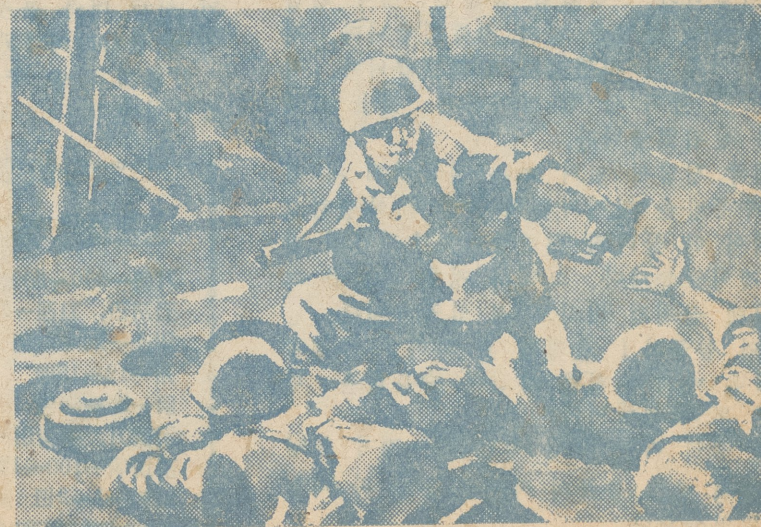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 답게 꼭 용감히 싸워 저 황 치부와 같은 놈들을 몽땅 요정을 내야 한다!》

정국 형님은 대원들을 이끌고 적탄 속을 누비며 지뢰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째 퍼붓던 비가 멎기는 했으나 밤은 먹물을 풀어 놓은듯하여 눈앞도 분간하지 못 하게 캄캄했습니다. 자칫 잘 못해 지뢰가 터지는 날엔 야단이였습니다. 그러나 공병 형님들은 침착하고도 날쌔게 손더듬을 해 가며 지뢰를 파고 또 팠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흐를수록 온 몸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형님들은 땀을 훔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동무들! 우리 땅크가 공격할 시간이 돼 오오. 만일 놈들에게 들키면 내가 놈들을 홀려 갈테니까 그 새 동무들은 지뢰를 몽땅 파제껴야 하오.》

정국 형님의 말이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 《딱콩!》하고

놈들의 요란한 카빙 총 소리가 밤 하늘을 찢습니다.

《쉿!》정국 형님이 대원들에게 이렇게 신호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100 메터도 되나마나 한 오른 편 낮은 산 허리에 있는 적 화점에서 련거퍼 총탄이 날아 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 접근한 탓으로 놈들에게 들킨 것이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정국 형님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도 이 지뢰를 빨리 파 제끼지 못 하면 우리 땅크가 전진하지 못 하게 된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초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개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 동무들! 지뢰를 다 파 제끼면 이 신호총을 쏴서 부대에 알리시오.》 무엇인가 비상히 결심한듯 정국 분대장 형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호총을 대원들에게 맡기고 나서 날쌔게 도랑으로 해서 적들이 총질하고 있는 낮은 산 쪽으로 기여 나갔습니다. 적들을 자기 쪽으로 홀려 그 사이에 대원 형님들이 지뢰를 파 제끼게 하자는 것이였지요. 정국 형님은 오른 손으로 허리의 수류탄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발로 고리를 물어 빼자

《야! 이 새끼들아, 여기 있다!》하고 번개 같이 뛰여 가며 집어 던졌습니다. 요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뒤미처 놈들이 죽어 너머지며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당황한 놈들은 정국 형님 쪽에 대고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거의 반 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적들은 이 쪽이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알자 더욱 날뛰였습니다.

정국 형님이 달려 드는 적들에게 네 번째 수류탄을 던지려는데 눈앞이 아찔하고 팔매이 탁 풀리지 않겠습니까! 적탄에 맞은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정국 형님은 그 자리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놈들아! 올테면 와 봐라!…》정국 형님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수류탄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 틈에 다른 대원 형님들은 정국 형님의 명령 대로 놈들의 지뢰를 몽땅 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붉은 신호탄이 날아 올랐습니다.

우리 땅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놈들을 막 깔아 뭉갰습니다. 그 뒤를 보병 형님들이 총창을 번쩍이며 원쑤놈들을 막 찔러 눕히고 서울에로 서울에로 쳐들어 갔습니다.

전우들이 달려 와서 정국 형님을 그러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정국 형님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었습니다. 적탄에 피투성이가 된 형님의 몸을 살피던 전우들은 형님의 앞가슴에서 적탄에 찢기고 피에 젖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그처럼 귀중히 간직하던 푸른 맹증이였습니다. 찢기고 피에 젖은 맹증을 받아 들고 부대장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정국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민청원이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이 맹증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의 영예를 빛내였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남긴 이 고귀한 혁명 정신은 이 피묻은 맹증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 ×

해설원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니 김 정국 형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습니다.

(김 정국 형님은 정말 훌륭한 민청원이였다. 우리 모두가 그처럼 당과 수령님께 충직한 민청원으로, 로동당원으로 준비하기 위해 더욱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리라!》

이렇게 가슴 속에 다지며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동물들은 얼마나 오래 살가요?

거북—200~300년
코끼리, 고래—50~30년
암소—20~25년
개—12~15년
닭—20~30년
비둘기, 구렁이—30~40년
까마귀—100~120년
암벌—1~5년

휘날리는 두개의 《모범 분단》기'발

—함흥시 금사 중학교 17 분단(2중 모범 분단)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연 일 덕

1962년 4월 15일, 이 날은 17 분단 동무들이 언제나 잊을 수 없는 날이랍니다. 34 명의 동무들이 학교에서 처음 《모범 분단》 기'발을 타던 날이기 때문이예요. 분단 동무들은 이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저 기쁨으로만 이 날을 맞이한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힘 있게 나붓기는 《모범 분단》 기'발을 우러러 보며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문을 다시 한 번 한구절 한구절 마음 속으로 외웠답니다. 그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이 흐른 오늘 분단에는 마침내 두 개의 《모범 분단》 기'발이 나란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학습

앞가슴에 반짝이는 《모범 분단》 휘장을 볼 때마다 이들은 소년단원의 첫째 가는 임무인 학습을 더 잘 해야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군 했지요.

분단 동무들의 학습 열의를 높여 주기 위한 분단 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까칠봉의 전투 영웅 김 광운 아저씨와의 상봉 모임은 분단 동무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지요. 아저씨는 미국놈들의 폭탄이 막 쏟아지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도 짬만 있으면 늘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날이 밝고 싸움으로 날이 저무는 고지의 전호 속에서도 종이가 떨어지고 학습장이 떨어지면 포탄에 끄슬린 나무 껍질에 글을 써 가며 조선 로동당 력사를 꾸준히 학습했다는 이야기는 분단 동무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습니다. 더우기 분단 동무들의 심장을 틀어 잡은 것은 함흥 의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평북도 박천군 박천 중학교 학생인 옥희 동무와의 상봉입니다. 옥희는 미국놈들의 저주로운 총탄에 맞아 두 손을 잃고도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꾸준히 학습하여 언제나 최우등을 했답니다. 옥희와의 상봉 모임은 최우등이 되지 못 한 많은 동무들에게 더욱 큰 가책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분단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이런 사업이 자주 진행되면서부터 학습 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어려운 행군의 나날에도 등에 진 배낭에 글을 써 가지고 다니며 글을 읽었다는 오 백룡 선생의 회상기 《배움의 첫 걸음》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분단에는 분산 동무를 비롯한 여섯 동무들이 학습에서 도무지 전진이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부에 아직 열성을 내지 않는 동무들도 있었답니다. 분단 앞에는 이들의 학습을 빠른 시일 내에 최우등으로 끌어 올려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운동에 사

는 분산이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분산이는 공부를 잘 못 하여 늘 동무들의 애를 먹이던 데다가 어머니가 오래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분단 위원 지숙이는 분단 위원회 앞에서 자진해서 분산이를 맡아 나섰습니다. 지숙이는 학교에서 공부만 끝나면 늘 분산이네 집에 찾아 가서 집안 일도 거들며 주고 학습도 차근차근 도왔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단 동무들은 저저마다 떨쳐 나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주자는 것이지요.

문학을 잘 하는 복순이는 문학 공부를 도와 나섰고, 수학을 잘 하는 순자 동무는 수학을 방조 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분산이네반 동무들은 집안 일을 모두 거들며 주었습니다. 글씨를 깨끗이 쓰는 순옥이는 정리되지 못 한 분산이의 학습 노트를 차근차근 정리 해 주었습니다.

분산이는 산수 책만 펼쳐 놓으면 꼬덕꼬덕 졸기부터 하였습니다. 산수 문제 풀이에는 더욱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예요. 때문에 산수 문제를 방조하기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응용 문제를 풀 때면 알기 쉽게 해설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리해하지 못 하면 분산이의 생활과 제일 가까운 실례를 들어 응용 문제를 만들어 주어서 풀게 하였지요. 분산이가 졸음을 참지 못 할 때면 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 춘자 동무가 옛'이야기를 재미 있게 해 주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지성은 마침내 분산이를 비롯한 여섯 동무를 영예로운 최우등의 대렬에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단이 동원되고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며 이악하게 배워 나가는 이들에게 점령 못할 고지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단은 지난 3월 전국 학과 경연 대회에서 단체 3 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이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학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이들은 룡성 기계 공장 민청원 형님들과 경쟁을 걸고 더욱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붉은 마음

무더운 날씨가 며칠 째 계속되던 지난해 8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땀을 흘려 가며 8월의 명절 준비에 서둘고 있였습니다.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뛰여 갔습니다. 기순이도 집으로 뛰여 갔어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니는 기순이를 주려고 얼음 과자를 사가지고 온 것이였어요. 얼음 과자를 받아 든 기순이는 며칠 전 상봉 모임 때 병원에서 만났던 옥희 동무의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옥희! 그는 지금 흥성 거리는 명절 준비에도 참가 못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기순이는 《어머니! 이 얼음 과자를 나 혼자 먹을 수 없어요.》하고는 점심 식사 할 생각도 잊고 곧 의대 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기순이의 마음은 막 안타까왔습니다. 얼음 과자가 자꾸만 녹기 때문이였지요. (그러다 가기 전에 다 녹으면 어쩔가!) 그는 뛰다 싶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 갔습니다. 기순의 이마에서는 막 땀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뼈와 살도 서슴 없이 바친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을 생각할 때 그는 더운 줄도 몰랐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동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은 분단 전체 동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는 분단 집단이 옥희의 치료를 도와 나섰습니다. 방과 후에는 늘 찾아 가 재미 있는 노래를 불러 주었고 새 소식들도 알려 주군 하였습니다.

집단이 1년 8 개월 동안 옥희의 치료를 꾸준히 도왔습니다.

옥희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분단 동무들은 옥희를 얼싸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찌 이뿐이겠어요.

단 위원회 앞에 맹세한 23 분단 (인민반 3년)을 방조한 감격적인 이야기는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은 학교에서 제일 뒤떨어진 23 분단을 친동생들처럼 도왔습니다. 집단이 그들을 모두 한 명씩 맡아 나섰습니다. 방과 후에는 늘 재미 있는 이야기도 해 주고 학습을 차근차근 도왔습니다. 정말 친한 형제가 되였어요. 붉은 넥타이가 구김'살이 지면 반듯하게 대려 매 주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도 아침 조기회로부터 저녁 때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하루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동생들에게 큰 교양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짬만 있으면 공원과 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년단원이 지켜야 할 도덕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분단 동무들이 서로 이른 새벽을 다투어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반 어린 동생들의 난로'불을 피워 놓고 가까운 서운동, 금사동 마을로 다니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일요일이면 늘 어린 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맡아서 깨끗이 미화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정성 들인 보람이 있어 23 분단도 지난 6월에 마침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운동을 《위생 모범》 동으로 꾸릴 것을 결심한 이들은 아침마다 조기 청소도 하고 성천강'가에 나가 자갈을 주어다 우물 주변, 변소 주변, 화단 주변들을 깨끗이 미화하였어요. 일요일이면 인민군 후방 가족들과 로력이 부족한 가정들을 방문하여 집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 주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화단을 꾸려 주였지요.

그러기에 반룡 마을 사람들은 《모범 분단 학생들이 다르다.》고 이들을 보기만하면 칭찬하군 합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지난 6월 마침내 《2중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지요.

두 개의 《모범 분단》 기'발을 자랑차게 휘날리며 이들은 지금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훌륭한 민청원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소년단원의 의무를 더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그림자

(6 회)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6.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테야!》

천룡이는 이튿날 아침에야 정신이 들었다. 머리도 맑아졌다.

부드러운 아침 해'살이 입원실을 환하게 비쳐 주고 있었다.

《째잭 째잭》

병원 뜰안에 들어 찬 나무 아지마다에서 새들이 우짖는다. 서늘한 바람이 활짝 열어 놓은 창문으로 향긋한 꽃향기를 실어 왔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천룡이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 보고 있었다. 마치 꿈나라에나 온듯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맘 편안히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 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문득 내가 어떻게 여게 와 누웠을가 하는 생각이 났다. 그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렇지! 명길이랑, 경팔이, 문일이들이 나를 업어 왔지… 밤새 얼마나 고생들을 했을가, 밤도 깊었을 텐데 그 애들은 무사히 돌아 갔을가?

천룡이의 가슴에서는 동무들에 대한 그리움이 뭉게뭉게 피여 올랐다. 금시 명길이의 부드럽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 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덤비기 잘 하는 그러면서도 옳은 걸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 보는 경팔이, 그리 좋은 건 못 되지만 기분만 좋으면 멋지게 이'새로 침을 뿜기 잘 하는 문일이, 천룡이는 그들의 나쁜 버릇까지도 지금은 다 정다웁고 살틀하게만 여겨졌다.

이것은 그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였다. 그전 같았으면 가까이 지내면서도 항상 그들의 눈치를 살피기가 일수였고 때로는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가? 하고 불안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면 그들은 항상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고 또 걱정 해 주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공연히 자기만이 지레짐작으로 동무들을 의심했구나 하는 후회까지 났다.

더우기 포근한 침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원 누나들의 친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천룡이의 어린 가슴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고맙고 행복한 생각이 솟아 올랐다.

만일 집에 그 대로 누워 있었더라면 자기는 꼭 죽었을 것만 같았다. 집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났다. 밝은 세상에 자기 집 같은 그런 어둠의 구석이 있다는 것은 천룡이로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것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무서운 소굴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천룡이는 소름이 끼쳤다. 빨리 병이 낫게 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망스럽기까지 했다.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 가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어느덧 천룡이의 눈앞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길이네 집이 떠올랐다. 비록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집이였으나 천룡이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덴 없을 상 싶었다. 더우기 명길이 어머니의 굳세면서도 인자한 모습이 못 견디게 가슴을 파고 들었다. 명길이의 어머니 손이 한 번 자기 몸에 닿기만 하면 단번에 병'줄이 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왜 그렇지 못할가? 언제 한 번 어머니에게 명길이 어머니에게 품은 그런 마음을 가져 본 때가 있었던가! 까다롭고 욕심 사납고 입버릇이 사나운 어머니… 그것만이면 또 괜찮지만 어머닌 지금…천룡이는 생각하는 것조차 무서웠다.

어지러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을 때 의사 선생과 간호원이 들어 왔다.

《좀 어떴니?》

젊은 의사가 벙글벙글 웃으며 침대로 다가 왔다. 간호원이 체온계를 꺼내 천룡이 겨드랑에 끼워 주었다. 의사는 천룡이 바른 손목을 잡고 맥을 보았다. 천룡이는 이들의 손'길에서도 여적 맛 보지 못한 행복감에 사로 잡혔다.

맥을 짚어 보던 의사는 기쁜 얼굴을 지으며

《됐소! 됐소!》

하며 기뻐하였다.

주사를 놓고 약을 먹였다.

간호원 누나가 무슨 생각에선지 급히 위생복 주머니 속에 손을 찌르더니 꽁꽁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었다.

《어제밤 동무를 업고 온 그 애들이 주고 간 거예요.》

천룡이가 급히 쪽지를 펴 보니 명길이의 글씨가 나타났다.

《빨리 나으라! 학교 일은 걱정 말어! 매일 와서 가르쳐 주마!

명길》

천룡이는 눈'시울이 뜨끔해졌다.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불을 홀렁 뒤집어 썼다. 그는 편지를 움켜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공부가 필하기가 바쁘게 명길이는 경팔이, 문일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떠났다. 그들이 거리를 지나 가는데 상점에서 명길이 어머니가 무언가 한아름 사 가지고 나왔다.

《어머니!》

명길이가 먼저 소리쳤다.

《잘 만났다. 이걸 천룡이께 갖다 주어라!》

하며 종이꾸러미를 명길에게 내밀었다.

아침에 천룡이를 찾아 간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상점에 들린 것이였다.

《나도 좀 있으면 가 봤으면 좋겠는데 네가 잘 말해라!》

《어머니! 천룡이 어머닌 가 봤나요?》

《아침에 갔지!》

《그래요?》

명길이는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로서 응당한 일이였지만 명길이는 왜 그런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닐 만났으니 천룡이도 좋아 했겠지! 하고 명길이는 속으로 혼자 좋아하였다

그 날은 마침 읍 장날이였다. 거리에 들어 서니 많은 사람들이 물'결치고 있었다.

세 아이는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속을 뚫고 병원 쪽으로 걸어 갔다.

그들이 거리 한판에 있는 국영 여관 앞을 지나 가고 있을 때였다.

경팔이가 웬 일인지 사람들 속으로 뛰여 들었다.

명길이와 문일이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멍청하니 경팔이가 사라진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참 기다려도 경팔이는 오지 않았다.

두 아이는 은근히 걱정이 되여 경팔이가 뛰여 간 쪽을 걸어 갔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경팔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팔인 무슨 지랄을 쓰는 거야!》

문일이가 화가 나서 두덜거렸다.

명길이도 짜증이 났다.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는데 밸이 났던 것이다.

《우리끼리 가자!》

문일이가 더는 찾기를 단념하고 발'길을 돌렸다.

해도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여 명길이도 문일이 말에 동의했다. 그들이 병원에 거의 갔을 때였다.

《애들아!》

뒤에서 경팔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땀을 벌벌 흘리며 뛰여 왔다.

《너 미쳤니?》

문일이가 맵짜게 한 마디 했다.

《엥이 분해 죽겠어…그 놈들 또 놓쳤단 말이야.》

경팔이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꺼냈다.

《그 놈이란게 누구야!》

명길이가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경팔이는 문일이를 쳐다보며

《거 왜 어제 밤 애네 집 앞에서 만났던 그 놈 있잖어.》

《그게 정말이야?》

문일이는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어 경팔의 한 쪽 팔을 붙잡으며 되물었다.

《사람들 속에서 그 놈이 눈에 띄이지 않어? 그래 막 따라 갔는데 장마당 한판에서 또 놓쳤단 말이야! 야!》

경팔이는 거품을 물며 분해하였다.

명길이는 대뜸 이마'살을 찌프리며

《쓸 데 없는 짓이란데두, 왜 자꾸 그러는거야.》

하고 두 아이에게 퉁방을 주었다.

경팔이는 잔뜩 볼이 부어

《너처럼 그래 가지군 원쑤놈 그림자도 못 찾겠다…》

하고 앵돌아졌다.

문일이도 입이 쓰겁다는듯 찍 침을 내뿜었다.

셋이 입원실에 들어 갔을 때 천룡이는 한 쪽으로 돌아 누워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천룡이!》

명길이가 방에 들어 서며 소리쳤다.

천룡이가 번쩍 눈을 떴다. 대뜸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세 아이들은 와르르 천룡이게 오그라들어 그의 손을 일시에 잡아 쥐였다. 천룡이는 기쁨과 미안스런 기색을 얼굴에 띄우며 어쩔 바를 몰라 했다. 더우기 명길이가 사과며 과자 봉지를 끄려 놓자 천룡이는 감격하여 말도 하지 못 했다.

입 빠른 경팔이가 어머니가 몸소 사 주더라는 말을 했을 때 천룡이는 솟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별로 신통한 말도 없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만에 명길이가

《너희 어머니 오셨댔지?》

하고 침대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어머니가 왔다 간 흔적이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왔다 갔다면 빈손으로는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천룡이는 그저 《잠간 들렸다 갔어…》 하고 부끄러운듯 고개를 딴 데로 돌렸다.

《농장 일도 바쁜데 오래 있으면 뭘하겠니…》

명길이는 천룡이를 위로해 주듯 웃으며 말하였다.

그들은 한동안 병이 좀 어떤가, 불편한 거나 요구할 게 없는가 등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별안간 천룡이가

《어제밤 무슨 일이 없었니?》

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걱정 말어…지금 마을에 자위대가 밤이면 골목마다 다 지킨다.》

문일이가 신이나서 말했다.

《그렇지만 우린 우리 대로 망을 봤지…이제 두고만 봐…꼭 그 놈을 잡아 내고야 말테니!》

경팔이가 당장 원쑤를 잡아 덮치기라도 하듯 두 손을 휘저었다.

천룡이는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된듯 어깨를 털썩 떨구었다.

《그런 걱정은 말구 빨리 낫기나 해!》

명길이는 다정히 천룡이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다.

천룡이는 무언가 얘기를 할듯 할듯 하다가도 애오라지 입만 놀렸다.

명길이는 이것을 눈치 챘으나 우정 말머리를 바꾸었다.

《천룡이! 사흘 후에 이야기 모임이 있는데 너두 참가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누가 이야기해 주시는지 알어? 명길이 어머니야!》

경팔이가 또 참지 못 하고 말을 가로챘다.

《그래?》

천룡이는 반가운 기색으로 명길일 바라보았다.

《다른 얘긴 아냐, 어머니가 옛날에 지주놈들에게 억눌리워 살던 이야기야.》

명길이는 후'날에도 들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두 한번 어머니께 들은 일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서 혼났다. 지주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문일이는 그 때 일이 생각 나서인지 불끈 주먹을 부르쥐기까지 했다.

《너흰 그렇게 못 살았니?》

천룡이는 대뜸 동정의 기색으로 물었다.

《우리 뿐인가 뭐, 너희두 그렇게 살지 않았니?》

명길이는 어데서 들은 눈치로 이렇게 말하였다.

천룡이는 그저 잠자코 있었다.

《참 네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니 어머니 말씀이 생각 나는구나‥옛날에 어머닌 내 형님이 앓아 죽게 됐을 때두 병원이란 생각두 못 했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됐니?》

《죽었지 뭐!》

명길이는 보지도 못 한 일이면서도 호한 숨을 쉬였다.

《천룡이…얼마나 좋아! 아무 때구 병나면 척 이렇게 치료를 받구.》

문일이가 새하얀 침대 하불을 슬슬 어루만져 보기까지 했다.

천룡이도 동감이라는듯 자기 침대며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진 방안을 휘 살펴 보았다.

아이들도 새삼스레이 훌륭한 설비로 갖추어진 방안을 정겨웁게 바라 보았다. 행복에 겨운 명랑한 얼굴들이였다.

한참 생각에 잠겼던 천룡이가 아이들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나직이 그러면서도 힘 있게 말하였다.

《애들아!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다음 호에 계속)

△ 아재비 순사질하면 팔촌까지 성세섰다.

— 일제의 악질적 주구, 경찰들의 행패가 혹독하였다는 것을 말함.

△ 개 종자는 난날부터 짖는다.

— 악질적인 지주, 자본가의 략탈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 넓은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한 치 사람의 욕심을 메우지 못 한다.

— 략탈자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말.

동화

벼짚올가미

김 신복

흉악하고 욕심이 땅보다도 더 두꺼운 지주 황가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놈의 집에서 머슴을 십 년 동안이나 살던 바우가 삯전을 셈해 받을 날이 왔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약속한 10 년이 다 되였습니다.》

《오냐 삯전을 셈해 달란 말이지?》

황가놈은 시뻘겋게 피'발이 선 퉁방울 눈을 뒤룩거리며 한결이나 수판알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수판을 놓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약속대로 벼 스무 섬과 논 하루 갈이와 밭 하루 갈이를 주시면 그만인걸요.》

바우는 참다 못해 한 마디 던졌습니다.

《얘, 이 놈 봐라. 너 받을 것만 생각하고 네가 내게 치를 것은 생각치 않느냐?》

지주놈은 어이 없다는듯이 연신 코'방귀를 뀌며 투덜댔습니다.

《아니 제가 치를 것이라니요?》

바우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 놈,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입은 것은 공짠 줄 아느냐? 이 고약한 놈!》

황가놈은 화를 벌컥 내며 수판으로 퇴'마루를 꽝꽝 두들겼습니다.

《아니 여보, 그래 굶기고 헐벗겨서 일을 시키는 데가 어데 있소?》

바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이 놈 불한당 같은 놈 내 쌀을 먹고 내 천으로 옷을 지어 입고 무슨 아가리질이야?》

황가놈은 하늘이 얕다고 펄펄 뛰였습니다.

《네 이 놈, 십 년 간 먹고 입은 것을 셈해 보니 네가 받을 것은 한 푼도 없다. 더 있어서 머슴을 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짚이나 한 단 지고 나가서 짚신 장사라도 해 먹어라. 이 것도 네 형편이 불쌍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이다.》

황가놈은 십 년 동안이나 바우를 뼈'골이 녹아 나게 부려 먹고 그냥 내쫓자는 심'보였습니다.

황가놈은 바깥 마당에 드높이 가려 놓은 벼'짚 무지에서 짚을 한 단 뽑아 내여 바우에게 던져 주였습니다.

《이 강도놈아! 네가 몇날이나 흔들거리며 잘 사나 보자!》

격분한 바우는 짚'단을 들어서 그 놈의 상판을 드럽다 치고는 뒤도 안 돌아 보고 씽씽 걸어 나갔습니다.

짚단은 황가놈의 상판에서 와스스 흩어지더니 때마침 락엽을 흩날리는 가을 바람에 불리여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큰 길에 나선 바우는 지푸라기들이 날아 와 몸에 감기는 것을 떨어 버리며 계속 씽씽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자 맑고도 은근한 목소리로 누가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우는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였습니다.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바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또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바우는 그만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 맑고도 은근한 목소리는 바로 바우의 몸에 날아 와 감기는 벼'짚들이 하는 말'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도와 드리겠어요!》

《뭐라고?…》

바우는 다시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정성껏 가꾸어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랍니다.》

《허 그렇지!》

바우는 그제사 그 벼'짚 한 오리 한 오리에 제 피땀이 스며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바우는 벼'짚을 그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벼'짚은 계속 날아와 모였습니다. 이윽고 벼'짚 한 단이 다 모이자 바우는 그것을 든든히 동여서 어깨에 메였습니다.

짚'단에 얻어 맞고 나자빠졌던 황가놈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자 행길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우는 벌써 퍼그나 멀리 갔습니다.

《이 놈, 게 섰거라, 네가 나를 치고 도망치면 그래 무사할 줄 아느냐?》

황가놈은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훨훨 가던 바우가 허리를 꾸부리고 무엇을 주어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놈이 벼'짚을 모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놈아, 짚 한 단도 줄 수 없다. 게 놓고 가거라!》

황가놈은 이제 와서 벼'짚도 아까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달려 가서 짚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처럼 처먹고 살이 찐 몸이 무거워 얼마를 못 가서 헐떡거리며 도로 주저 앉았습니다.

《이 놈아! 그 벼'짚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꾸어 주는 것이다. 후에 변리를 붙여서 갚아야 한다.》

이 놈은 바우가 이미 멀리 가서 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벼'짚을 멘 바우는 어디라 없이 가고 또 갔습니다.

바우는 어느듯 깊은 산 속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배도 고픈 김이라 어느 바위 밑에 앉아서 한쉼 쉬려고 했습니다.

《에익 망할놈의 세상! 아무리 애써 일을 한들 무엇하나, 다 빼앗기고 품에 쌀 한 줌 없어 늘 배를 곯아야 하는 걸!》

바우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를 가지고 새끼를 든든히 꼬아서 올가미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 드리겠어요!》

벼'짚이 말했습니다.

《허 도와 준다니 말만해도 고맙다!》

바우는 올가미를 든든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지친 몸을 겨우 가누면서 또 길을 걸었습니다.

바우가 어느 험한 벼랑 밑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난 데 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하고 나타났습니다.

《에쿠마나!》

바우는 넝큼 놀라 자빠 질번 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금방이라도 달려 들 차비였습니다. 맨주먹 뿐인 바우는 큰'일 났습니다. 꼼짝 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벌벌 떠는데 어깨에서 올가미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올가미야, 너는 네 주인을 도와라, 나를 해치려

는 저 놈의 목을 옭아라! 하고요, 그러면 주인님은 큰 수가 납니다.》

바우는 얼'결에 울가미의 말을 옮겼습니다.

《울가미야, 너는 네 주인을 도와라, 나를 해치려는 저 놈의 목을 옭아라!》

그러자 울가미가 휙 날아서 호랑이의 목에 걸렸습니다. 울가미는 구렁이처럼 호랑이 목을 서리서리 감고 바싹 비틀었습니다. 목이 조여 들자 호랑이는 앙 소리를 지르며 세길 네길 뛰였으나 끝내 네 다리를 쭉 뻗고 말았습니다.

바우는 뜻하지 않게 큰 호랑이를 잡고 싱글벙글 기뻐했습니다.

《울가미야, 네가 나를 정말 도와 주누나, 이제 나도 살게 되였다. 고맙다, 울가미야!》

《우리를 정성껏 가꾸어 주시는 주인님의 은혜를 갚을 뿐이예요.》

그로부터 바우는 호랑이 잡이 명수로 널리 이름이 났습니다.

세상에서도 바우가 마치 황소 몇 마리를 단번에 꺼꾸러뜨릴만한 큰 힘 장수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울가미 하나만 들고 가서는 호랑이를 척척 쉽게 잡아 온다는 것이지요.

바우는 호랑이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판 돈으로 저와 같은 머슴과 땅이 없는 소작살이 농군들의 살림을 도와 주었답니다.

바우의 이름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황가놈도 바우가 호랑이를 많이 잡아서 저만 아니라 숱한 농군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황가놈은 또 배'속에서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습니다. 저도 호랑이를 많이 잡아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 어떻게 나도 호랑이를 잡을 수 없을가?…》

이 놈은 자나 깨나 호랑이 생각 뿐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호랑이 가죽을 몇 백 장 쌓아 놓고 너무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우놈이 갑자기 그렇게 힘 장수가 됐을 리는 없지, 아무래도 그 울가민가 뭔가한테 무슨 조화속이 있을거야.》

이 놈은 바우가 힘이 어느 만큼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라 세상에 떠도는 소문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황가놈은 바우가 사냥을 갈 때 몰래 따라 가 볼 결심이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 날이였습니다.

이 날 바우는 울가미를 어깨에 걸치고 깊은 산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황가놈도 뒤를 밟아 따라 갔습니다.

바우는 호랑이가 있음직한 바위 굴에 이르자 먼발치에서 큼직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바위에 맞아 요란한 소리를 내였습니다.

그러자 굴 속에서 성이 잔뜩 난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부짖으며 나왔습니다. 소나무 뒤에 숨은 황가놈은 너무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서 와들와들 떨면서도 바우가 호랑이를 어떻게 잡는가를 보려고 눈을 초롱처럼 밝혔습니다.

《울가미야, 네 주인을 도와라. 나를 해치려는 저 놈의 목을 옭아라!》

바우가 이렇게 웨치자 어깨의 울가미가 휙 날아서 호랑이의 목에 가 떨어지더니 바싹 조여 맸습니다.

호랑이는 어흥 소리를 지르며 빨간 입을 서너 번 짝짝 벌리다가 뻐드러졌습니다.

신기한 울가미 놀음에 정신이 홀딱 빠졌던 황가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바로 생각했어, 울가미에 조화속이 있었던 거야, 야 그 놈의 울가미가 천하 없는 보물이로구나.》

황가놈은 울가미에 부쩍 욕심이 났습니다. 울가미를 어떻게 하면 빼앗아 낼 수 있을가 하고 골돌히 생각하던 황가놈은 퍼뜩 어떤 생각이 머리 속에 번개쳤습니다.

《틀림 없이 저 놈이 저 울가미를 그 때 내가 준, 아니 꾸어 준 그 벼'짚으로 꼬았을 거야. 그렇다면 저 울가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주놈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게 벙글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이 놈, 내 것을 가지고 저렇듯 호랑이를 많이 잡았구나, 고약한 놈, 네가 그동안 잡은 호랑이도 다 내 것이다!》

황가놈은 당장 울가미와 호랑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려다가 고쳐 생각하고 슬그머니 돌아 서더니 줄달음을 쳤습니다.

외딴 산 속에서 바우와 맞선대야 매나 죽도록 얻어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황가놈은 관가에 들어 가서 바우를 얼토당토 않게 도적으로 몰아 고발했지요.

호랑이를 잡아 가지고 돌아 오는 바우는 무척 유쾌했습니다.

《에 이 놈의 가죽을 팔아서는 엊그제 떠들어 온 그 거지 머슴 총각에게도 주고 장가도 들여 주어야겠군!》

바우는 이 번에도 불쌍한 머슴을 도와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우가 집에 들어 서자마자 관가에서 나온 수십 명의 라졸들과 맞다들렸습니다.

라졸들은 박달나무 몽치로 바우를 두렵다 족치면서 울가미와 호랑이 가죽을 있는 대로 몽땅 빼앗았습니다.

《이 놈 네가 그 동안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모았다는 재물도 모두 황 지주 나리께 바쳐야 한다. 만일 안 바치면 네 놈의 모가지가 뎅겅 날아나 알겠니?》

라졸들은 이런 오름'장까지 놓고 돌아 갔습니다.

울가미를 빼앗아 낸 황가놈은 첫 사냥을 떠났습니다.

《호호, 호피(범의 가죽) 백 장이면 나라가 알아 보는 큰 부자가 된다지… 내가 이제 이 나라에서 첫 손'가락 꼽히는 부자가 된단 말이렸다. 머슴도 백여 명 더 두고 첩도 여라문 더 얻어 오고, 호호.

나리님 부럽지 않은 살림을 한단 말이여!》

황가놈은 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주먹 구구를 몇 백 번도 더 했습니다.

호랑이가 있음직한 바위 굴에 이르렀습니다.

황가놈은 바우의 본을 따서 먼 발치에서 큰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바위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내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방에 메아리를 불러 마치 우뢰 울듯 했습니다. 이윽해서 아니나 다를가 황소보다도 더 큰 호랑이가 나와 따웅하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였습니다.

황가놈은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웃으며 웨쳤습니다.

《울가미야 네 주인을 도와라. 나를 해치려는 원쑤의 목을 옭아라!》

울가미는 황가놈의 어깨에서 휙 날아 올라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한 번 그리더니 호랑이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황가놈의 목에 떨어졌습니다.

울가미는 또아리를 틀듯 감겨서 사정없이 황가놈의 목을 바싹 죄였습니다.

황가놈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구 울가미야, 난 네 주인이다. 호랑이를 잡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놈 네가 무슨 내 주인이란 말이냐? 네 놈은 우리 주인 바우를 해치려는 원쑤로다!》

울가미는 벼락같은 소리로 황가놈을 꾸짖으며 더욱 더 목을 조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 떡이냐 하는듯이 호랑이가 달려 들어 황가놈을 뼈도 안 남기고 몽땅 먹어 버렸습니다.

울가미는 다시 바우의 손에 들어 와 바우와 마을 사람들의 살림을 풍성하게 해 주었답니다.

진디물을 잡아 먹고 사는 무당벌레

나는 얼마 전 대동강 유보도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유보도를 거닐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였답니다. 우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전체 인민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대동강 유보도는 얼마나 좋은가? 푸른 물 우에 가지 각색 옷차림에 뽀트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로 울긋불긋 수 놓아진 아름다운 대동강! 록음 우거진 유보도! 바로 이 곳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래일의 벅찬 로동을 위하여 휴식하며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동교로부터 옥류교를 향하여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인민들이 정성들여 심어 놓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과 꽃들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 나무들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땀이 스며 있는 것일가?)이런 생각에 나무들과 꽃들을 눈여겨 보며 걷던 나는 공원 한 옆에서 아직 어린 살구나무 한 대에 눈이 갔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싱싱이 자라는 데 저 나무는 왜 아직 저렇게 싱싱하게 자라지를 못 했을가?) 나는 잎들이 말린 살구나무에로 다가 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말린 잎들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벌레들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 마침 록화 사업소 아저씨들이 나무들을 소독하려고 분무기를 들고 오시는 것이였습니다. 아저씨들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벌레들이 진디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진디물과 함께 무당벌레, 개미, 파리들이 붙어 있는 것이였습니다.

이날 나는 아저씨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이 진디물은 살구나무에 뿐만 아니라 배나무, 복숭아나무, 산딸기나무, 버드나무, 싸리나무, 개나리나무, 비술나무, 병꽃나무, 인동덩굴, 노박덩굴, 구기자나무, 접초나무 등에서 록색, 흑색, 회색, 회백색, 적색을 띤 여러 가지 형태의 진디물들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들은 이 진디물들은 식물 잎에 붙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무당벌레, 개미, 파리들은 무엇하려 붙어 있는지? 나의 의문을 모두 풀어 주시었지요. 아저씨들은 확대경까지 내주시며 진디물에 확대경을 대고 자세히 들여다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 글쎄 진디물이 침같은 입을 나무 잎 속에 꽂아 놓고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디물은 세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아저씨들에게 물었더니 그 중 량 쪽에 있는 두 개의 꼬리로부터는 달랄한 진물을 내 보낸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미, 파리들은 그 달달한 진을 빨아 먹기 위하여 항상 진디물의 뒤를 따라 다닌답니다.

그러나 무당 벌레는 그 진을 빨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디물을 직접 잡아 먹기 위해서 따라 다닌답니다.

무당 벌레 가운데는 이와 같은 진디물을 잡아 먹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식물 잎을 갉아 먹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진디물을 잡아 먹는 무당벌레는 유익하지만 잎을 갉아 먹는 무당벌레는 해롭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무당벌레와 해로운 무당벌레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다른 점을 찾아 내였습니다. 유익한 무당벌레는 점이 7 개 있거나 18 개 있는 것도 있었고 전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당벌레는 약 200 종 있는데 28 점 무당벌레만 잎을 갉아 먹는 나쁜 벌레이고 7점 무당벌레는 18 점 무당벌레, 노란색 무당벌레, 붉은점 무당벌레 등 많은 무당벌레들과 함께 진디물 같은 나쁜 벌레들을 잡아 먹고 사는 아주 좋은 벌레들이랍니다.

그러면 이 좋은 무당벌레들이 진디물을 얼마나 많이 잡아 먹고 사는지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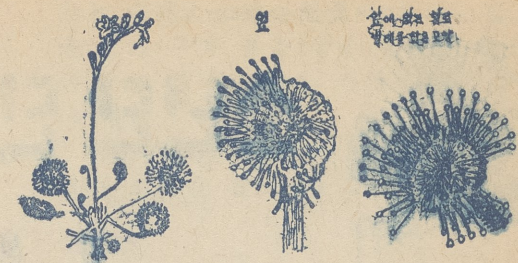
좋은 무당벌레들 중에서 7점 무당벌레 하나만 들어 보드라도 알에서 깨여난 벌레가 번데기로 되기 전까지의 기간(유충)에 약 600~800 마리의 진디물을 잡아 먹으며 유충이 번데기로 되였다가 다시 우리들이 보고 무당벌레라고 말하는 성충으로 되여 나온 후에는 매일 평균 270 마리의 진디물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식물들은 이 진디물에 의해서 더러 피해를 입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 나쁜 진디물을 잡아 먹고 사는 무당벌레를 한마리도 잡아 죽이지 말고 적극 보호합시다.

벌레를 잡아 먹고 사는 식물

누구나 다 식물이 벌레를 잡아 먹고 산다면 미더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높은 산 습지에 가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파리, 기타 작은 벌레들을 잡아 먹고 산다. 끈끈이주걱은 여러 해 사는 초본 식물이다. 이 식물은 엽병(잎 자루)이 길어 마치 작은 주걱 모양 같은데 여기에 많은 털이 붙어 있다. 여름철에 잎 사이에서 높이 10~15 Cm 가량의 꽃 줄기가 나오는데 이 꽃 줄기는 처음에는 한 쪽으로 꾸부러져 있으나 꽃이 핌에 따라 점점 곧바로 선다. 꽃은 여러 개 피는데 흰색이다.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벌레를 잡아 먹는가를 보기로 하자.

파리라든가 기타 작은 벌레들이 날아 다니다가 이 식물의 잎에 앉으면 잎에 있는 털들은 파리나 벌레가 앉은 쪽으로 구부러져서 벌레들이 다시 날아 가지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손'바닥에 벌레가 앉은 다음 손으로 쥐는 것과 비슷하다. 이리하여 벌레가 죽으면 잎에서 소화가 되여 이것이 식물의 영양으로 된다. 이 식물의 잎에는 벌레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과 즙액이 있어서 벌레를 쉽게 소화해 내는 것이다. 끈끈이주걱은 잎으로 벌레를 잡아 먹기 때문에 뿌리는 아주 작으며 질소 성분이 적은 땅에서도 잘 자란다. 이 식물을 화분에 심어 가꿀 때에는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온실이나 기타 방안에서 기르면 저절로 벌레를 잡아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벌레를 잡아 먹는 식물을 《식충식물》이라 한다.

끈끈이주걱을 화분에 가꾸자면 산에 있는 것을 떠다가 심을 수도 있고 이미 있는 화분에서 엽병(잎 자루)부분을 짤라 꽂으면 뿌리가 난다. 또 화분에 물에 젖은 이끼를 넣고 종자를 받은 다음 인차 심으면 쉽게 번식된다. 이 식물은 물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분에는 물이 잘 증발 하지 않게 이끼를 넣고 화분은 물 그릇 속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물 그릇의 물은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화분은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어야 벌레들이 잘 날아 와 잡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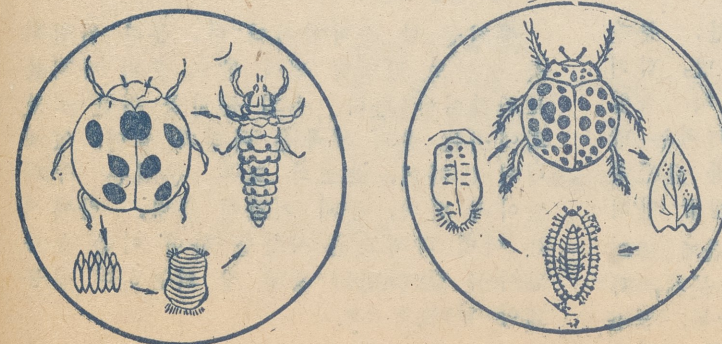
☆ 이것을 아십니까?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가?

동무들은 강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 가고 생각 해 본 일이 있는지요.

정말 강물은 어디서 생겨 어디까지 흐르는 것일가요? 강물이 흘러 오는 쪽을 따라 끝까지 찾아 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가요? 거기에는 작은 샘물이 있을 뿐입니다

강이란 수 많은 작은 샘물이 모여서 된 것이지요. 이렇게 이루어진 큰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 곳에서 흘러 내려 간 강물은 모두가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소년단 단, 분단총회

김 성 구

소년단 규정에 의하여 단 총회는 3 개월에 1 회 이상, 분단 총회는 1 개월에 1회 이상씩 하게 된다.

소년단원들은 단, 분단 총회를 통하여 당 정책과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 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를 실천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능력과 취미, 요구에 맞게 분공을 받는다.

또한 총회에서는 결정하고 분공된 문제들이 어떻게 실천되였는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되였는가를 갈라 내서 정확히 총화 짓고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

뿐만 아니라 단, 분단 총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생활 총화를 진행하며 모두가 자각적으로 소년단 생활에 참가하게 하며 언제나 집단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단, 분단에서는 총회를 건느지 말고 잘 준비해서 제날'자에 꼭꼭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 총회에서는 실지 어떤 문제들을 토의하는가?

총회에서는 자기 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총화하며 나선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한다.

매년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단, 분단 위원회 사업 총화와 위원 선거, 년, 학기(또는 분기), 월 사업과 방학간의 사업 계획 및 총화 사업,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문제, 민청 및 소년단 상급 단체(전국 및 도, 시군, 소년단 련합 단체)들의 결정이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한 문제, 학과 학습과 《교마 7 개년 계획》 활동,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 혁명 전통 교양과 도덕 교양, 소년 위생 근위대 및 목화 근위대 활동과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 모범 소년단 단체 칭호 쟁취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또한 총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의무 실행 정형과 소년단 생활 총화, 소년단원의 입단과 필단, 소년단원의 표창과 찬양, 중앙 및 도, 시군 소년단 련합 단체 대회에 보내는 대표 선거, 위원들의 이동 관계 등 조직 문제들도 토의한다. 물론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다 총회에서 토의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단체의 실정과 토의해야 할 문제의 성질에 따라 총회나 또는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목이 뚜렷하고 자기 학년과 특성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례를 들면 인민반 2,3 학년 분단들에서는 《누구의 학습장이 더 깨끗한가?》, 인민반 4 학년 분단에서는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알자!》, 중등반 1,2 학년 분단에서는 《귀중한 45 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공청원 리 순희 언니처럼 집단과 조직에 충실하자!》 등으로 수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다.

총회의 성과는 준비를 잘 하는 데 있다.

총회를 잘 준비하려면 단, 분단 위원회를 적어도 한달쯤 전에 열고 준비 계획을 토의하여야 한다. 총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에서는 총회 제목은 어떻게 달며, 언제 어디서 하며, 보고와 토론 준비는 누가 맡아서 하며, 준비 기간에 분단, 반에서는 어떤 다채로운 사업을 하며 이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등을 잘 의논하여 분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회의 장소를 꾸리는 문제, 회의에 모셔 올 손님은 어떤 분들이며, 회의하는 날에 할 여러 가지 체육, 예술, 오락 등 행사 준비 (사열식도 할 수 있다), 각종 전람회, 벽보 등을 어떤 내용으로 누가 준비하겠는가도 잘 의논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과 분공이 되면 단,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에게 총회 제목과 날'자, 장소, 토의할 중심 내용과 해결하자고 하는 목적, 소년단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 주며 분공 받은 일들을 제때에 도와 주고 평가해 주는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다음에 단, 분단 총회의 진행 형식에 대한 도해를 참고적으로 제시합니다.

★ 단, 분단 총회 진행 형식 ★

총회 준비	분단 위원회 소집…	총회 제목과 내용, 날'자와 장소 토의 결정. 보고, 결정, 토론 준비 및 기타 여러가지 준비 사업 분공.
	준비 사업 추진…	소년단원들 속에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 침투. 소년단원들과 보고 및 결정 내용을 의논하여 작성. 소년단원들의 토론 준비 방조. 총회와 관련하여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 준비 (전람회, 연예 공연 등)
	단, 분단 위원회 소집…	총회 준비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운다. 총회에 제기할 보고와 결정할 문제를 토의
총회 진행	소년단 의식 진행…	대렬 편성 및 보고. 단 기'발 입장 (분단 기'발은 미리 회의장에 내다 놓는다)
	개회 선언…	《지금으로부터 OO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어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제창한다.
	집행부 선거…	(구두로 몇 명으로하며 누구 누구로 하자고 제기한다. 거수로 결정한다.)
	토의 제목…	(거수로 결정)
	보고…	(단,분단 위원장 혹은 위임 받은 위원 또는 지도원이 할 수 있다)
	토론…	자발적으로 나와 한다.
	결론…	(지도원 선생이 한다)
	결정…	(한 조항씩 거수로 결정한다.)
	폐회 선언…	《이상으로써 OO 총회를 끝마칩니다.》라고 선언하면 이어 소년단 행진곡을 제창한다.
	소년단 의식 진행…	소년단 구호와 답례. 단 기'발의 퇴장 (분단 기'발은 다 끝난 다음 소년단실에 가져다 보관한다.)
총회 결정 실행 및 총화	단, 분단 위원회 진행…	(결정 실행을 위한 계획과 분공 조직.)
	결정 실행을 위한 지도 방조 사업…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결정 실행 정형의 총화 평가 사업…	(일상적으로 말로 또는 벽보, 속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또는 위원회와 총회에서 평가해 준다.)

독자란

(작문)

우리 어머니

협동 농장원인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알곡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0세가 가까와 오지만 일터에서 쉬는 시간이면 민청원 오빠, 언니들의 틈에 끼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십니다. 그 뿐만 아니지요. 모를 낸지 한 달도 못 되는 푸른 논판의 아지찬 벼포기 사이를 긁어 김을 맬 때엔 언제나 앞장 서 나가지요.

지난 6월 모내기 총화를 위한 모임 때였습니다. 우리 《소년 선전 예술대》 동무들과 함께 공연하러 가 보니 어머니가 주석단에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날마다 보는 정다운 어머니지만 그 날은 어쩐지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왔어요!》하고 소리쳐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윽하여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자 박수 소리가 요란히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상품을 받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무도 기뻐 목을 길게 빼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나는 곧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 차렸어요. 어머니는 아마 자기의 피눈물겨운 어린 시절과 오늘의 행복을 생각 하셨을거예요.

부모를 일찍 잃은우리 어머니는 13세 때 검동'골 김 지주네 머슴으로 들어 갔답니다. 어머니는 1년 3백 예순 다섯 날을 다 해진 베치마를 두르고 지내며 지주놈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일했답니다.

어머니는 김 지주놈이 광포에 낚시질을 나가면 하루 세 끼 밥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놈이 잡은 잉어를 50리 밖의 함흥에 있는 애비에게 산 것으로 가져 가군 했답니다. 지주놈은 고기가 한 마리라도 죽으면 개화장(지팽이) 막대기로 사죽을 못쓰게 어머니를 때리군 했답니다. 어머니는 동지섣달 추운 날에 이불도 없이 지주집 사랑 추운 방에서 주무셨다니 어찌 병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주놈은 이에는 아랑곳 없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한지에 빨래 하러 내쫓았답니다.

이렇게 자란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협동'벌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씨한 기와집을 쓰고 삽니다.

《응당 할 일을 했는데 상품까지 탔구나, 얼마나 좋은 조국이냐,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던 그 때에야 꿈엔들 생각할 일이냐.》

이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형제들에게 상품으로 타신 세수대야를 내놓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아침 어머니가 상품으로 타신 세수대야로 세면을 하고 학교에 가서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합니다.

함남도 정평군 동호 중학교 단
제 5 분단(모범 분단)류 용복

★ 수수께끼 ★

△ 온 종일 한 팔 들고 짐 나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사람이 남쪽을 보고 앉으면 북쪽을 보고 앉으며 웃으면 같이 따라 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시)

노래 불러요

우리 학교 교실도
저 넓은 운동장도
기계'소리 요란한 실습 공장도
김 일성 원수님이 터잡아 주셨어요.

실습 공장 일 마치고
막 나서면은요.
나는요 언제나 노래 불러요.
기계를 깎으며 부르던 노래.

나는요 꼬마 선반공,
앞날의 기사,
학습에서 배운 지식
실습으로 다져 가요.

이 기쁨, 이 자랑을
노래 불러요.
김 일성 원수님의 넓으신 품에서
자라나는 우리 행복 노래 불러요.

평북 룡천군 덕승 중학교 단
제 3 분단 장 성복

푸른 숲속 우리 학교

푸른 숲 속 우리 학교 락원이라네.
새들도 날아 들어 노래노래 부르네
아침 저녁 정성 들여 물 주고 가꿨더니
오늘은요 향기론 꽃도 피였네.

푸른 숲 속 우리 학교 과일 동산 되였네
아버지, 어머니들 찾아 오셔 칭찬하네
우리 분단 동무들 힘 모아 가꿨더니
오늘은요 주렁주렁 과일 열렸네.

붉은 마음 키워 주는 우리의 학교.
책상, 의자, 유리창도 반짝반짝 빛나네
아침 저녁 힘 모아 다듬고 닦은 보람
오늘은요 해'빛도 반가며 스며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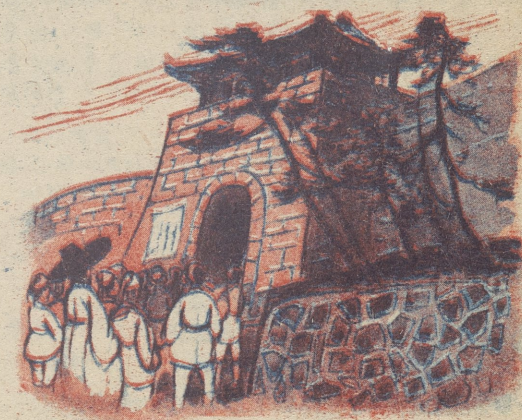
당의 품'속 우리 학교 행복의 요람
해'님 따라 돌고 도는 해바라기 꽃처럼
우리들은 당을 따라 배워 가네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자라나네.

평남도 문덕군 룡담 중학교 5 분단 집체작

(만화)

신 구 현

(108) 죄인 수레가 서울 왕에게 도착한 때였습니다. 수레는 산산이 깨여지고 사지를 묶아 맨 쇠사슬은 동강동강 끊어지면서 길동은 공중으로 날아 오르더니 멍석을 타고 구름에 묻혀 떠가는 것이였습니다.

장교들은 하도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9) 장교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실을 왕에게 아뢰였습니다.

왕은 듣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길동의 원을 풀어 주고 하루라도 속히 조선을 떠나게 하자고 신하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서울의 동, 서 남, 북 네 문에는 홍 길동을 병조 판서에 임명한다는 글이 나붙었습니다.

(110) 길동은 이 글을 보고 곧 어엿한 병조 판서의 웃차림으로 대신이 타는 외바퀴 높은 수레를 타고 왕에게 인사하러 궁궐로 들어 갔습니다.

이 때 왕의 신하들은 좌포장 강명과 상의하고 궁궐 문 밖에 숨어 있다가 길동을 죽여 버릴 의논을 하였습니다.

(111) 왕은 병조 판서 길동을 반가히 맞이하였습니다.

《한 몸으로 병조 판서라는 평생 소원을 풀고 조선을 떠나게 되였사오니 한편 기쁘고 한편 서글픈 마음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간악한 무리들을 내치시고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길동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역시 멍석에 몸을 싣고 옥색 구름에 싸여 떠가고 말았습니다.

(112) 길동의 신출귀몰한 재주에 그를 해치려고 궁궐 문 밖에서 기다리던 간악한 놈들은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왕은 곧 팔도에 암행 어사를 보내여 길동이 잡기를 그만 두게 하고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간악한 관리와 부자들을 조사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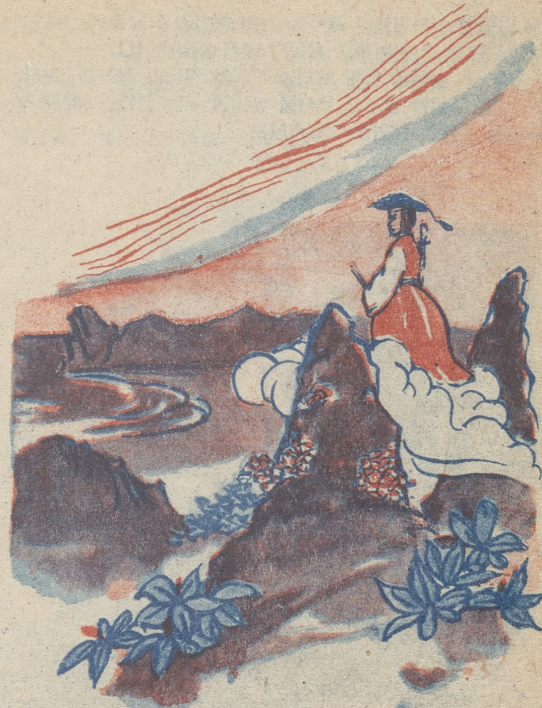
(113) 길동은 도화동으로 돌아와서 병조 판서의 이름으로 치백이, 홍갑이, 광업이 등 팔도의 여덟 장수들에게 싸움을 거두고 곧 돌아 오라는 명령을 내리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영웅 호걸들은 승리의 노래도 드높이 도화동으로 도화동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산이 높다 하나 산이 높다 하나
우리 수령 은덕보다 높을손가
우리 판서 은덕보다 높을손가
에헤 에헤 에헤 도화동을 가잔다.

물이 깊다 하나 물이 깊다하나
우리 수령 사랑보다 깊을손가
우리 판서 사랑보다 깊을손가
에헤 에헤 에헤 도화동을 가잔다.

하늘이 변화 많다 많다 하나
우리 수령 조화보다 많을손가
우리 판서 조화보다 많을손가
에헤 에헤 에헤 도화동을 가잔다.

(114)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할수록 길동에겐 ■ 아픈 일이였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으려 자애로운 어머니와 작별하고 집을 떠났더니 이제는 또 조국과 작별하고 떠나잖으면 아니 되였기 때문입니다. 영웅 호걸들이 돌아 오기 전에 갈 곳을 봐 두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한 길동은 할아버지에게 다녀 올 곳이 있으니 돌아 오기를 기다리라고 인사를 하고 멍석을 불러 타고 하늘 높이 남쪽으로 중국 남경을 향하여 날아 갔습니다.

⑮ 길동은 도중 파도 출렁이는 남해 바다 가운데 있는 률도국을 살펴 보았습니다. 조선과도 가까우면서도 산천도 아름답고 땅도 기름지며 번화한 곳이여서 길동의 마음을 몹시 끌었습니다. 길동은 그래서 률도국을 한 두 번만 돈 것이 아닙니다. 이 곳을 부자, 량반이 없는 행복한 백성의 나라로 꾸리자고 길동은 결심하였습니다.

⑯ 길동은 남경 구경을 하고 돌아 오는 길에 조선과 률도국 사이의 제도라는 섬을 발견하고 가장 높이 보이고 아름다운 오봉산 우에 내리여 사방을 살펴 보았습니다. 주위가 칠백리 가량 되여 보이고 기름진 땅에 오곡과 자연이 풍족하여 사람 살기에 률도국만 못지 않은 곳이였습니다.

⑰ 길동이 제도에서 돌아 온지 사흘 후였습니다. 팔도에 흩어져 용감하게 싸워 이긴 치백이, 광업이, 홍갑이 등 여덟 장수들도 돌아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들 가운데 낯모를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가난한 농민들이며 자원해서 《활빈당》에 들어 와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길동은 병조 판서의 옷차림을 하고 여덟 장수와 젊은이들을 맞이하였습니다.

⑱ 길동은 여덟 장수들에게서 뼈저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자놈들을 몽땅 잡아서 내치지 않고서는 세상은 고로울 수 없고 백성들은 편안이 살 수 없다고 여덟 장수는 한결 같이 아뢰였습니다.

⑲ 전라도만 하더라도 악질 부자놈들을 수 많이 내쳤건만 그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백성들의 원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며 싹싹 쓸다 싶이 땅들은 부자 집으로 들어만 가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치백이가 말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돌아 온 홍갑이가 뒤'이여 말하였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감사라든가 원놈과 같은 관리 놈들이요. 놈들은 부자 놈들과 단짝이 되여 백성들의 땅을 꺼리낌 없이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빈 토지 대장(조세를 받아 들일 목적으로 어떤 농민이 어떠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써 놓은 장부) 만을 잔뜩 끌어 안고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단 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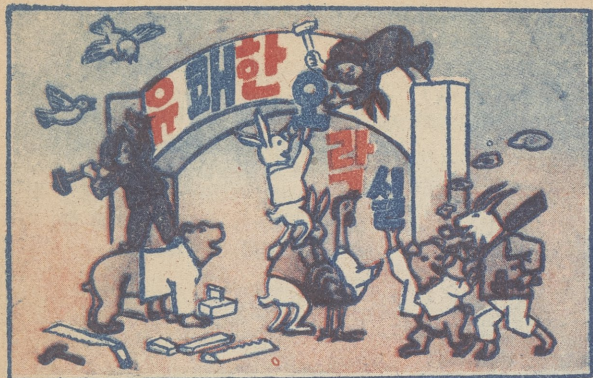
⑳ 《사정은 매 일반이요!》 하고 딴 도에서 돌아 온 장수들도 말하였습니다. 경상도 장수 광업이는 관리놈이나 부자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하면서 경상도 내 부자와 관리 놈들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 냈습니다.

《… 땅을 빼앗아 버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조세두 그 대로 백성들이 계속 물게 하니 이런 도적 놈들이 어디 있단 말이요》 광업은 분을 참지 못 하여 가슴을 쳤습니다.

㉑ 광업이의 말을 치백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억울한 사정을 한 마디도 말 못 하고 오직 분한 마음이 뼈에 사무쳐 통곡할 뿐이요, 이런 도적놈들의 세상은 때려 부셔야 하오…》 치백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갑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서 길동에게 엄숙하니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화동을 떠날 때 고르지 못한 세상을 화살 같이 펴지 않고서는 돌아 오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으니 당장 지금이라도 다시 떠나도록 허락 하심을 아뢰오.》 기타 장수들도 자리에서 일어 났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유쾌한 오락실

(유희) 《발목 매여 잡고 뛰기 놀이》

1. 준비할 것

ㄱ. 유희할 총 인원수의 $\frac{1}{3}$정도 만큼 발목에 맬 수 있는 끈을 준비한다. 끈은 될수록 굵고 든든한 것으로서 50 cm 정도이면 된다.

ㄴ. 평지나 약간 경사진 데서 20 m 거리로 출발선과 목표선을 그어 둔다.

2. 노는 조직

ㄱ. 같은 인원수로 두 편으로 나누고 각 편에서는 3 렬을 만들어 3 명씩 조를 짠다.

ㄴ. 3 명씩 짠 조는 가운데 학생이 각각 끈을 준비한다.

ㄷ. 두 편은 출발선에 5 m 간격으로 종대로 나란이 선다.

ㄹ. 각편의 출발선에 선 3명중 가운데 선 학생이 준비한 끈으로 자기의 두 발을 모아 두 발목을 든든하게 비끌어 매고 선다. 왼편에 선 학생은 자기의 왼 손으로 자기의 왼발목을 잡고 서서 오른 손으로는 가운데 선 학생의 왼 팔꿈치를 잡는 동시에 가운데 선 학생은 왼 손으로 왼 편 학생의 오른 팔꿈치를 서로 꼭 잡는다.

그리고 오른 편에 선 학생은 왼편 학생의 반대로 자기의 오른 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고 서서 왼 손으로는 가운데 선 학생의 오른 팔꿈치를 잡는 동시에 가운데 선 학생은 오른 손으로 오른 편 학생의 왼 팔꿈치를 서로 꼭 잡는다.

3. 노는 방법

ㄱ. 지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에 선 각 조는 뛰여 나간다. 그리하여 20 m 앞에 있는 목표선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선에 돌아 온다. 그러면 다음에 대기한 3 명의 조는 같은 방법으로 목표선까지 뛰여갔다 온다.

이리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하게 된다.

현상 문제

① 1, 2, 3, 4, 5, 6, 7, 8, 9의 수'자를 아래의 그림에 적당히 배렬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을 따라서 각각 합하여 어느 줄이나 다 15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인민반 용)

② 행길 가던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놀고 있는 두 형제의 년령을 물으니 형이 하는 말이 《저의 년령을 한살 동생에게 주면 동갑이 되고 동생의 년령을 한 살 제가 가지면 동생 년령의 곱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두 형제의 년령은 얼마겠습니까?

(초중반 용)

★ 7 호 현상 문제 해답.

물 흐르는 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집니다. 그것은 물이 많을 때보다 우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 7 호 현상 문제 당선자들.

자강도 시중군 약수 중학교 리 명숙
황북도 평산군 물개 중학교 로 용길
함남도 허천군 허천 중학교 리 광룡
함북도 경성군 오남 중학교 최 장호
평북도 철산군 련수 중학교 최 정세
황남도 은률군 금목 중학교 장 종의
평남도 회창군 성흥 중학교 최 종현
함흥시 회상구역 회양 중학교 리 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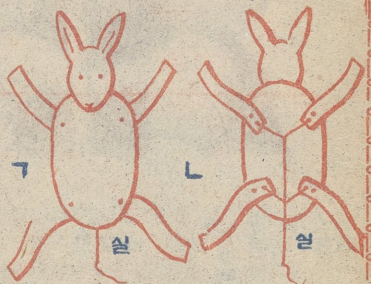
(놀음감 만들기)

움직이는 토끼(고양이, 곰, 개, 너구리, 양) 만들기.

토끼 만드는 방법

그림 ㄱ와 같이 토끼의 각 부분품을 먼저 만든다.(토끼의 머리, 몸뚱이, 발 4 개) 그리고 실로 각 부분들을 꿰맨다 (꿰 매여 홀쳐맨다.)

다음에 그림 ㄴ와 같이 실로 매여 실을 살작살작 당기면 토끼 발은 산 토끼처럼 움직인다.

※ 이 방법을 응용하면 고양이, 곰, 개, 너구리, 양, 기타 동물도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 9 호 (총 167 호) 편집 위원회
1963년 8 월 25일 인쇄 1963년 9 월 1일 발행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452 값 25 전

우리들의 그림 전람회

《우등'불 모임》 함남도 신흥군 경흥 중학교 리 [illegible]식

《오늘은 우리의 명절날》
황북도 평산군 북수 중학교 리 병철

《우리 함께 풀어보자》
평남도 문덕군 어진 중학교 최 례식

《조선 인민의 원쑤들에게 죽음을》
함남도 신포시 어항 중학교 조 지봉

더 많은 가금을 기르자!

닭이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는 적은 밑천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고기와 알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닭과 거위의 털은 외화를 얻는 원천으로 되며 그것들의 주둥이와 발톱은 갖풀의 으뜸 가는 원료로 된다.

그리고 닭똥은 질소와 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로서 좋다.

우리들도 학교와 가정에서 가금류들을 기르면서 가금류의 품종, 생활 습성, 사양 관리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워 나가자.

흰 닭

흰닭은 우리 나라의 거의 전 지역에서 제일 많이 기르고 있는데 다른 닭들에 비하여 알을 많이 낳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닭은 털색이 희고 주둥이와 다리는 누르며, 볏은 붉고 크다. 흰닭은 1년에 보통 150~200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므로 흰닭은 알을 생산하는데 매우 좋다.

진주닭

진주닭의 무게는 보통 1. 1. [illegible] 정도 나가며 큰 암[illegible] 2.5 kg까지 나가는 것도 있[illegible] 이 닭은 1년에 보통 90~[illegible] 개의 알을 낳는데 특히 닭[illegible] 비타민 《에이》와 까로찐이 이 들어 있으므로 몸이 [illegible] 사람이나 늙은이들이 먹[illegible] 건강에 좋다.

검은닭

우리 나라 여러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기르고 있다.

온 몸이 검은 색이고 몸은 잘 발달 되어 있다. 이 닭은 병아리로 깨워서 6개월 자라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한해'동안 평균150~160 개의 알을 낳는다. 알 한 개의 무게는 55~60 [illegible]

칠면조

칠면조는 무게가 보통 5 kg 정도 되는데 1년에 60 개의 알을 낳는다. 알 한 개의 무게가 80 g 씩 된다.

송화닭(룡연닭)

송화닭은 현재 황남도 서해안 일대와 평남도 일부 해안 연선 지대들에서 많이 치고 있다.

이 닭은 다른 닭에 비해 빨리 자라고 알은 1년에 90여 개를 낳는데 그 무게는 50 g 정도이다.

이 닭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광포종 암오리

광포종 암오리의 무게는 3.5 kg, 수오리는 4 kg 정도 된다.

새끼 오리는 빨리 자라는데 두 달이 되면 무게가 2~2.5 kg 에 달한다.

알은 1년에 평균 90~120 개 정도 낳으며 좋은 오리는 150 개까지 낳는 것도 있다.

거 위

거위는 우리 나라에 백색 거위와 회색 거위의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다 추위에 잘 견디며 고기를 생산하는데 좋다.

거위는 소나 말처럼 풀을 주로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알곡 사료를 거의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기를 수 있다.

거위는 6~9 개월 이상 되면 첫 알을 낳는데 해마다 알 낳는 수량이 늘어 난다. 그래서 3 년생이 가장 많은 알을 낳는다.